

소양강 상고대

지난해 12월 13일 소양강에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아침 물안개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습니다.

기온과 바람, 습도 등이 맞아야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춘천시정소식지

봄내

1月

JANUARY

3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안녕! 평창에서 만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춘천시 임시청사 목백합 나무 아래에서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수호랑’은 ‘수호+랑’의 합성어입니다.

‘수호’는 참가선수와 참가자, 관중 등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에서 따온 것입니다.

‘반다비’는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의지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반다비’의 ‘반다’는 반달가슴곰의 ‘반달’을 의미하고

‘비’는 대회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Contents

- 02 이달의 한 컷 – 수호랑 반다비
- 04 포토 춘천 – 소양강 상고대
- 06 2018평창동계올림픽 안내
- 10 신년칼럼 –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며
- 11 스페셜 – 무술년 ‘58 개띠’
- 14 똑똑 톡(talk)해요 – 춘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 16 김길소의 그때 그사건 13 – 한류관광의 1번지 남이섬, 춘천
- 20 춘천의 기념비 13 – 영세불망비, 벼슬아치들의 성적표
- 22 김호섭의 별의 별이야기 1 – 북극성, 우주에서 주인공은 나야 내!
- 24 자랑하고 싶어요 13 – 한샘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동행’
- 26 봄내기업탐방 – 유기농화장품 생산기업 제이앤팜LLC
- 28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이웃
- 34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 38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21-22
- 39 춘천의 기후와 생활
- 40 2018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44 생활뉴스
- 46 의회소식
- 49 봄내골소식
- 56 알림마당
- 62 동화읽는 어른1 – 그림책 프레드릭
- 63 노재현의 한소품 – 습관의 힘!
- 64 독자편지
- 66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월간 무료구독지입니다.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진 구독(무료)을 원하시면 ccc3@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연락처 기재)



스마트폰에서 파오인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한눈에 본 춘천시 통계



가구
118,139세대 + 164



인구
283,970명 + 159



65세 이상
43,820명 + 89



출생아 154명
(2017년 누적출생아 1,631명)



자동차
127,447대 + 312

2017년 11월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수치임
chstat.chuncheon.go.kr

봄내 | 324호(2018년 1월호)/비매품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18년 1월 1일

발행인 | 박종훈(춘천시 부시장)

편집위원장 | 한현주(춘천시 공보담당관)

기획 및 디자인 |

춘천시 공보담당관실 (033-250-3229)

불개미커뮤니케이션

상임위원 | 김정호, 이우진

인쇄 | 강원도민일보사

표지 사진 : 촬영일시 2017.12.13(수) 오전 9시 미디스토리





하나된 열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이목 강원도로 집중

2.9(금)~2.25(일) 17일간... 평창·강릉·정선에서 열려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세 번의 도전 끝에 2011년 7월 개최지로 선정,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맞이하게 된 대형 국제 대회이다.

지난해 신축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15개 종목에서

102개의 금메달을 두고 95개 국가 2,900여 명의 선수들이 겨울의 축제를 펼친다.

3월 9일부터는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할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열흘간 개최된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을 표방, 강원도 및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

평창겨울음악제, 강원국제비엔날레 등 공연과 전시 행사를 올림픽 기간 내내 만날 수 있다.

‘하늘에서 본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설경’ (사진 ‘동트는 강원’ 박준욱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 2. 9 - 2. 25 (17일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3. 9 - 3. 18 (10일간)

대회기간 2018. 2.9(금)~2.25(일) 17일간
경기종목 15개 종목 102개 금메달
설상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빙상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컬링
슬라이딩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참가규모 95개 국가 2,900여 명 선수

대회기간 2018. 3.9(금)~3.18(일) 10일간
경기종목 6개 종목 80개 금메달
설상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빙상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참가규모 45개 국가 670명 선수

설상, 슬라이딩, 빙상 3가지로 나누며 올림픽 15종목, 패럴림픽 6종목이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
남자/여자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계주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오르막, 내리막, 평지 비율이 3분의 1씩 구성된 코스를 주행하는 종목
남자/여자 개인, 스키애슬론, 스피린트, 팀 스피린트, 단체출발, 계주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함께 치르는 종목
개인 스키점프 노멀힐 개인+크로스컨트리 스키 10km, 스키점프 라지힐 개인+크로스컨트리 스키 10km, 팀 스키점프 라지힐 개인+크로스컨트리 스키 (4명 x 5km)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되어 선수들은 총을 등에 연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며, 정해진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종목
남자/여자 개인, 스피린트, 추적, 단체출발, 계주
혼성 계주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스키

공중극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기 때문에 자유롭고 익스트림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스키 종목
남자/여자 모글 (MO), 에어리얼 (AE), 스키 크로스 (SX), 스키 하프파이프 (HP), 스키 슬로프스타일 (SS)



스키점프

스키를 타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급경사면을 활강하여 내려오다 도약대로부터 착지까지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해서 착지하는 종목
남자 노멀힐 개인, 라지힐 개인, 라지힐 팀, 여자 노멀힐 개인

피겨 스케이팅

음악에 맞추어 스케이트를 타면서 얼음판 위를 활주하며 점프, 회전, 예술적 연기를 수행하는 종목
남자/여자 싱글, 혼성 페어, 아이스댄스, 팀 이벤트



컬링

두 팀이 약 20kg의 스톤 (Stone)을 상대팀과 번갈아 먼저서 하우스 (House)라 불리는 과녁 중심에 더 가까이 보내는 팀이 점수를 획득하는 종목
남자/여자 경기
남녀 혼성경기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스노보드

보드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내려오며 속도, 예술성을 평가하는 종목
남자/여자 평행대회전 (PGS), 하프파이프 (HP), 스노보드 크로스 (SBX), 슬로프스타일 (SS), 빅에어 (BA)

패럴림픽 스노보드



봅슬레이

평균시속 135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스포츠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남자 2인승, 4인승
여자 2인승



아이스하키

스케이팅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각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고무원판의 puck을 스틱으로 쳐서 상대팀의 골대에 골을 넣는 종목
남자/여자 경기

패럴림픽 아이스슬러지하키



루지

앉아서 스타트한 뒤 썰매에 누운 채 최고시속 약 135km로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남자/여자 싱글, 더블, 팀 계주



스켈레톤

직선코스 30~40m 가속한 뒤 썰매에 엎드린 채 어깨와 머리,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여 조종하며 활주하는 종목
남자/여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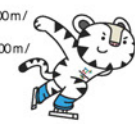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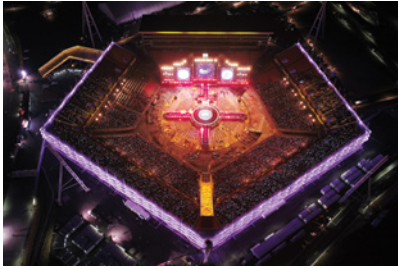
스케이팅을 신고 111.12m의 실내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순위를 겨루는 종목
남자 500m/1,000m, 1,500m/5,000m 계주
여자 500m/1,000m, 1,500m/3,000m 계주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팅을 신고 400m의 실내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속도를 겨루는 종목
남자 500m/1,000m/1,500m/5,000m/10,000m/메스스타트/팀추월
여자 500m/1,000m/1,500m/3,000m/5,000m/메스스타트/팀추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릴 메인 스타디움.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3만 5,000명의 관중을 수용합니다.

📍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66-16



강릉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하키센터 등)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의 올림픽파크

📍 강릉시 포남동 251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슬라이딩 경기인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스탠드 1,000석과 입석 6,000석 등 7,000여 명의 관중을 수용합니다.

📍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성화 춘천에 온다!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14시 ~ 18시 30분
- 봉송구간 : 3구간 64슬롯(1슬롯 200m) 11.6km
 - 1구간 : 남춘천여자중학교 ~ 무릉공원(16슬롯 3km)
 - 2구간 : 무릉공원 ~ 팔호광장(23슬롯 3.8km)
 - 3구간 : 호반사거리 ~ 강원도청 광장(25슬롯 4.8km)
- 축하행사 : 강원도청 광장

○ 성화봉송 이 점이 특색!

1	성화봉송 주자 7,500명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는 평화를 의미하는 7,500명의 주자와 이들을 돕는 2,018명의 지원주자가 함께합니다.
2	101일간 전국 2,018km 돌아	2017년 10월 29일 그리스에서 시작한 성화봉송은 11월 1일 인천에 도착해 101일간 17개 시·도, 151개 시·군·구 2,018km를 경유, 최종으로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에 도착합니다. 춘천에는 2018년 1월 29일 강원도청 앞에 도착, 오후 2시 봉송 기념식을 갖고 흥천으로 이어집니다.
3	한국 맞춤형 성화봉	눈, 비, 바람 등 한국의 겨울 기상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외부 환경에도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30년 만에 한국에서 제작된 맞춤형 성화봉입니다. 열에너지가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저온에도 성화가 타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일정 2.9~2.25

종목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회식		●																
설상	알파인스키			■	■	■	■	■		■	■			■	■	■	■	
	바이애슬론			■	■	■		■	■	■	■		■		■	■		
	프리스타일 스키		○		■	■		○	■	■	■	○	■	■	■	■		
	크로스컨트리 스키			■	■		■	■	■					■				
	노르딕 복합						■						■		■			
	스키점프	○		■		■			○	■		■						
	스노보드			○	■	■	■	■	■			○		○	○	■	■	
빙상	아이스 하키			○	○	○	○	○	○	○	○	○	○	○	■	○	■	■
	스피드 스케이팅			■	■	■	■	■	■		■	■		■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			■			■			■		■			
	피겨 스케이팅		○		○	■		○	■	○	■		○	■	○		■	○
	컬링	○	○	○	○	○	■	○	○	○	○	○	○	○	○	■	■	■
슬라이딩	봅슬레이										○	■	○	■			○	■
	루지			○	■	○	■	■	■									
	스켈레톤							○	■	■								
폐회식																		●

■메달 결정전 ○일반 경기(예선 등)

입장권 구매 안내



온라인 입장권 판매 : 2017년 9월 5일 ~ 대회 종료

모바일에서도 입장권을 실시간 구매할 수 있으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https://www.pyeongchang2018.com>



오프라인 입장권 판매 : 2017년 11월 1일 ~ 대회 종료

강원도청, 서울시청, 강릉시청,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19개 역사



개(犬)와 사람

사물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어제의 해와 오늘 떠오른 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와 오늘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할 줄 안다. 시간의 기점을 만들고 쪼개고 나누어 이름을 붙인다. 10개의 천간(天干)과 12지지(地支)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게 부여한 의미들이다.

내년의 이름은 ‘무술(戊戌)’이다. 한자어 기원으로 보면 무(戊)나 술(戌)이나 모두 창이나 도끼와 같은 전쟁무기를 뜻한다. 두 글자 모두 용맹스럽고 전투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술(戌)을 동물로 비유하여 개[犬]라고 한 것을 보면, 개가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개[犬]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접두어로 ‘개-’가 사용된 것은 좋지 않은 것, 나아가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과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편없는 사람을 말할 때도 ‘개만도 못한’이라고 하여 개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욕을 할 때 자주 등장하면서 이미지가 매우 나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전래민담을 살펴보면 개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로운 개 이야기[義犬說話]’와 ‘개무덤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아마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있고, 어느 동물보다 친근감이 크기 때문에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의견설화(義犬說話)는 주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났는데, 함께 지내던 개가 자신의 몸을 물을 적셔 주인의 생명을 구했으나 결국 그 개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

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가상하게 여겨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개무덤 이야기는 영리한 개가 위기에 빠진 집안을 구하거나 주인 곁을 지키고 있다가 주인과 함께 임종을 해서 곁에 묻어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개[犬]단어 앞에 충성, 효도, 의로움이 붙어서 충견(忠犬), 의견(義犬), 효구(孝狗)라는 단어들이 개무덤 설화 주변을 꾸준히 맴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토끼 사냥에 쓰던 사냥개를 사냥이 끝나자 주인이 삶아먹었다는 내용으로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개의 충실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목숨까지 헌신(獻身)하는 거룩함이 담겨있다. 그래서 ‘바친다’는 한자 헌(獻)자에 개[犬]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2018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큰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다. 용감하고 정의로우며, 의롭고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반드시 개[犬]같은 인물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이정배
(연경학당 대표 / 문화예술평론)

무술년 개띠의 해... '58 개띠' 인생역정을 말하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개의 해를 앞두고 무술년 연하우표를 발행했다. 戊(무)는 흙을 상징하고 흙색은 황색, 戌(술)은 개를 나타내 2018년 무술년을 황금개띠 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태어난 해에 맞춰 '띠'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개띠는 조금 특별하다. 누구나 '58년 개띠'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46년 개띠', '70년 개띠', '82년 개띠'라는 말은 없는데 유독 '58년 개띠'라는 말만 있을 까. 그들은 사람 수도 많고 삶의 영역도 넓다보니 어디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나이를 물어보면 '저 58년 개띠예요'라고 할 만큼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세대끼리의 동질감을 느껴서 아닐까 싶다. '58년 개띠'가 모든 개띠를 대표할 순 없지만 무술년인 1958년에 태어나 별 수 없이 '58년 개띠'가 돼야 했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살짝 풀어본다.

〈편집자주〉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행한 무술년 연하우표



베이비 붐 세대, 한 교실에 70명 2부제 수업도

전쟁이나 경제 불황 이후 출생률이 증가하는 베이비붐 현상이 1950년대 말 정점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후 1957년까지 80만 명대에 머물던 출생인구가 1958년을 기점으로 90만 명대로 급상승했다. 그래서 “동기는 많은데 다 알지는 못한다”고 ‘58년 개띠’들은 말한다. 김영석(60·공무원 퇴임 후 개인사업)씨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이 70명에서 80명 정도였어요. 오후에 등교하는 오후반 친구들도 그 정도였으니 동기만 1,500명이 훨씬 넘는거죠. 요즘 작은 초등학교 전교생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 교실은 ‘콩나물 시루’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은 늘 ‘만원(滿員)’이었지요”라고 이야기한다. 태어난 사람이 많아 학교와 회사 모두 항상 최고의 경쟁률 속에 살았다. 대학에 입학하던 77년에는 예비고사 경쟁률이 광복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된 뽕뽕이세대(무시험 추천배정세대), 고교평준화 등 모든 제도의 시작점에 서는 경우도 많았다.



1974년도 입학식 (사진제공 : 강원사대부고)



1970년대 교련경연대회 (사진제공 : 강원사대부고)



개띠 모임인 '전국 58무술생' 회원들(사진제공 : 한광호)

한국 현대사의 목격자

‘58년 개띠’는 한국의 현대사를 몸으로 느낀 ‘목격자 세대’다. 4·19혁명(1960년)과 5·16군사정변(1961년)은 어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다른 굵직한 사건들은 지켜보고 체험했다.

국민학교를 다니며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워야했고, ‘학도호국단’이라는 이름으로 교련복을 입고 학교운동장을 박박 기던 1974년 고등학교시절 영부인이 피살되었다.

‘58년 개띠’들이 대학문화의 주축이던 1979년에는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졌다. 이수영(60·한국수력원자력 근무중)씨는 “첫 휴가를 며칠 앞두고 10·26 사태가 일어나 1년 1개월 만에 휴가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1980년 찾아온 ‘서울의 봄(민주화의 봄)’은 너무도 짧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그리고 휴교령. 새롭게 탄생한 ‘군인 대통령’과 학생운동. 그렇게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다. 박종대(60·타이어대리점 운영) 씨는 군대시절 데모진압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친구와 대치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성장 궤도에 올려 놓는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동하기 했다.

40대에 들어서던 1998년 외환위기(IMF)가 찾아왔다. 당시 ‘사오정(40대와 50대는 이미 정년)’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희생양은 가장 젊은 ‘58년 개띠’였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얻은 경험들이 ‘58 개띠’를 더욱 뭉치게 했는 지도 모르겠다.

은퇴?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시작

‘58년 개띠’는 부지런하게 일해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명인으로는 유승민, 추미애, 전병헌, 김성식, 김부겸, 김성식, 전하진, 심재철, 이정현, 한선교 등의 정치인이 있고, 홍서범, 강남길, 장미희, 이동준, 남경읍, 주병진, 임백천, 신문선 등의 방송인과 연예인이 있다.

국내 100대 기업 임원들도 다수 있다. 이들은 아직 더 일을 하려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이 정해진 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의 기로에 섰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한민국 격변의 시간을 지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거쳐 온 ‘58년 개띠’는 제2의 인생을 바라볼 시점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나 스스로 희생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다. 역사의 전환점을 몸으로 체험했던 ‘58년 개띠’의 은퇴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58년 개띠’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기대해 본다.

인터뷰

“58년 개띠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되었다.”

‘전국58년 무술회(戊戌會)’

사는 곳도, 졸업한 학교도, 직장도, 다른 사람들이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되었다. 2011년 단지 ‘테니스를 좋아하는 ‘58년 개띠’가 뭉쳤다.

‘춘천 58년생 테니스회(회장 장상오)’라는 이름으로 15명이 모여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19명이 되었다. 춘천 지역 테니스클럽에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얼굴은 익힌 친구들이다. 코트에서 땀을 흘리며 더 친해졌다. 2014년 판이 더 커졌다. 2014년 전국에 있는 ‘58년 개띠 모임’이 뭉쳐 ‘전국 58 무술회(戊戌會)’를 결성했다. 초대 이상현 회장에 이어 2016년부터 한광호(60)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국모임 살림은 ‘춘천 58년생 테니스회’가 중 심이 된 ‘춘천 58 무술회’가 하고 있다.

모임 결성 이후 1년에 4번 전국을 순회하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는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경기보다 ‘58년 개띠’간의 친목이 중요하다. ‘58년 개띠 축제’다.

다가오는 5월에는 춘천 송암동국제테니스장에서 환갑을 기념한 ‘58 무술생 전국한마음테니스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환갑을 맞이하는 2018년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58 개띠들은 은퇴를 하는 시기이다. 한국 전쟁이후 보릿고개를 지나 산업성장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그 땀들이 결실이 되어 오늘이 되었다.

50대에 들어서며 조금씩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삶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다. 명예퇴직이 유행하던 시기의 두둑한(?) 퇴직금도 기대할 수 없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다. 그래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집 한 채와 많지는 않지만 매달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개 팔자 상팔자’ 일 수 있다. 은퇴라는 삶의 전환점에서 친구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



춘천58생 테니스회 회원들

분초까지 다투는 긴장감의 하루 절박한 시민의 든든한 수호천사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24시간 시민들의 지킴이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쉴 틈 없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의 대응이 시작되는 곳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춘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컴퓨터가 작동. 화면이 깜빡이며 지령/출동/확인/보고의 내용을 타전하는 무전음이 불꽃을 튐다. 시민들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112종합상황실 직원들의 하루는 분초를 다투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편집자주>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모든 사건의 컨트롤타워 112종합상황실

춘천지역 모든 112신고는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을 거쳐 해결된다. 다급하게 112로 도움을 요청하면 종합상황실에서 신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출동시켜 상황을 파악한다. 신고 접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를 배정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12신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해 종합상황실은 수사·교통·지역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만

근무할 수 있다. 2015년부터 12명이 4개 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은 휴무일에 시간을 내어 틈틈이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바뀐 길과 새롭게 지은 건물, 바뀐 가게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한다. 상황실 직원들은 이것을 ‘길학습’이라 한다. 상황실 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도 직원들의 몫이다. 신고를 받고 지령을 전달할 때 현장의 색깔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종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실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으로 불린다.

박종성(경정) 112종합상황실장은 “하루에 접수되는 신고는 평균 250여 건이다. 그 중 강력사건은 6~7건 정도이고 대부분 자살시도와 실종 등 구조관련 신고가 많은데 상황실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오인신고와 허위신고”라며 “민원성 신고로 112 연결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오인신고와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인다.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직감한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조카가 쥐약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는 신고다. 빠르게 발견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수배해 출동했다. 대간첩사건과 범죄사건 등의 수색을 담당하는 112타격대까지 출동해 1시간 동안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약을 먹었다는 조카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삼촌이 잘못 신고한 오인신고였다.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옛 강촌역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자주 울려 출동해 보니 중국관광객이 “호기심에 눌렀는데 정말 경찰이 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며 기념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오인신고와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해 사건 초기 대응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밖에도 “에어컨 실외기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장애인인데 화장실에 휴지 좀 가져다주세요” 등 이해하기 힘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112신고 통계를 보면 가볍게 넘길 해프닝으로 보기에 조금 생각할 부분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긴급신고전화통합’ 제도 시행에도 2017년 11월 말 현재 전체 112신고 중 17.5%(전국 약 45%)가 민원성 신고로 현장대응능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신고내용은 고소·고발 관련 절차, 교통사고·교통위반 상담문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생활소음, 동물구호·사체처리 등 생활불편, 현금인출기 고장,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단속 관련 항의성 문의 등 다양하다.



2016년부터 긴급신고 전화 3개로 통합운영

2016년부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한 신고는 범죄 112번, 재난119번,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정부 통합민원콜센터 110(120)로 연락하면 된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10(120)번 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신고 대응기관이 긴급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춘천경찰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민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규문 춘천경찰서장은 “경찰서의 컨트롤타워인 112 종합상황실은 단 1초라도 신고자에게는 절박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1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된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다.

2 긴급하게 걸려온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전화는 110,**
기억하세요 **112는 긴급범죄 신고만!!**

▽ **허위·거짓신고를 하면**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류 관광의 1번지

남이섬, 춘천

강원도를 일컬어 '관광 1번지'라고들 한다. 봄내골에는 이런 강원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연간 328만 명(2016년 기준)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남이섬이다. 봄내골 서쪽 맨 끝자락인 남산면 방하리의 북한강 줄기 한복판에 반달 모양으로 떠 있어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매력에 푹 빠진 발길이 사계절 동안 끊이지 않는다. 국내 단일관광지로 외국인(연간 130만 명) 방문객 최다 관광지(전국 1위)로 꼽히고 있다.



불모지에 싹튼 '국민관광지'

남이섬은 원래 섬이 아니었다. 홍수 때만 길이 막혀 섬이 되었던 곳이다. 청평댐(1944년 완공)이 세워져 상류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섬이 됐다.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1467년)을 평정하고 병조판서를 지내다 역적으로 몰려 2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남이(南怡·1441~1468) 장군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승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이름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앞섬이라는 뜻으로 남섬(南島)으로 불렸다. 조선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쓴 천우기행(穿牛紀行)과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에 이러한 지명 유래와 함께 일찍부터 '남이서(南怡島)'라고 한 기록이 적혀 있다.

큰 섬을 일컫는 '도(島)'에 비해 '서(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작은 섬을 뜻한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갯벌과 황무지나 다름없던 모래섬이었다. 홍수철에는 물에 잠겨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청평댐 완공으로 온전한 섬의 모습을 갖춘 해방 이후에는 고작 3가구가 터 잡고 밤나무와 땅콩, 참외, 수박 등 농사를 지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불모지가 수재(守齋) 민병도(閔丙燾·1916~2006) 남이섬 유원지 설립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지금부터 53년 전인 1965년이다. 금융계를 떠나면서 받은 퇴직금 등을 종잣돈으로 유원지 개발에 나섰다. 가장 먼저 나무를 심었다. 전 직원이 매달려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넓은 잔디밭도 만들었다. 남이 장군의 닢과 기상을 기리는 작업에 나서 돌무더기였던 묘역에 봉분을 쌓고 추모비를 세웠다. 조선시대에는 반역죄로 처형당하면 후손들이 묘를 만드는 걸 금지하였던 터라 진묘를 지키려고 만든 가묘였다. 노산 이은상이 추모의 글을 짓고 일중 김중현이 글씨를 써 묘역과 주변을 정성껏 가꿨다(진묘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위치)

당시에는 주말이나 휴가를 보낼 관광 휴양지가 전무했던 시절이었다. 이때부터 남이섬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남이섬 개발을 '경춘관광주식회사'로 출범시킨 후에는 잔디밭을 골프장(9홀 규모)으로 조성하고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익을 몽땅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끈질기게 가꿔 나갔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설 곳이 없어 가까운 일본, 동남아로 휴가를 떠나는 주한 외국 공관원들의 외화유출을 막고 건전한 국민관광지를 만들어 달라는 정부의 독려와 고장의 기대가 한몫 거들었다.

IMF 외환위기로 한때 위기 직면

북한강 줄기와 경춘국도로 이어진 경기도 가평군과 춘천시는 행정구역상 다르게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 사회 때부터 가장 이웃한 같은 생활권을 이뤄 왔다. 그 경계를 이루는 북한강에 떠 있는 남이섬은 둘레가 6km, 넓이가 46만㎡(13만 7,000평) 규모인 내륙의 아주 작은 섬이다. 행정구역은 엄연히 춘천시이지만 접근 도로망과 유일한 통로인 도선 선착장이 모두 가평군에 속해 있다. 춘천 시가지와는 멀리 떨어졌다. 반면 가평 시내에는 지척에 있다. 그래서 남이섬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조차 춘천 남이섬이 아니라 경기도나 가평의 남이섬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강폭이 좁은 데는 200여m 밖에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데도 눈을 씻고 봐도 다리를 놓을 계획이 추진된 적이 없다. 섬 전체가 사유지인데다 일반 거주민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국가하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남이섬이나 체류하는 직원들조차도 지리적 특성상 다리로 손쉽게 건너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드나드는



1988년 4월 - 본격적인 봄날씨 속에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와 차량들로 초만원을 이룬 남이섬



1973년 7월, 남이섬 유원지 선착장 모습으로 남이섬을 찾은 많은 행락객들이 유람선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것에 더 메리트를 부여했다. 행정구역 월경(越境)과 혼돈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얼핏 영·호남 경계의 섬진강변에 있는 화개장터를 연상시킨다.

강원도 울진이 경북으로 개편되던 시절 내무부에서 C군을 넘겨주는 대신 가평군을 강원도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 2차선 도로가 뚫린 남산면 방하리 쪽에 선착장을 옮기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됐었다. 그때마다 수변구역 개발제한을 앞세운 환경부의 제재로 번번히 좌절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영도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춘선 주변에 있는 강촌, 대성리 등과 함께 젊은이들의 해방구(유원지)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다 관광업계의 지각변동과 함께 IMF 외환위기까지 겹쳐 한때 속수무책의 난관에까지 직면했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에 휘말려 멸절했던 유원지가 폐허로 전락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대목이다.

드라마 ‘겨울연가’ 히트로 한류발원지 격상

1990년대까지는 강변가요 개최지나 최인호의 ‘겨울나그네’ 촬영지인 유원지로 연명했다. 2001년 12월 KBS드



라마 ‘겨울연가’가 대히트를 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일본과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관광객의 발길이 급증했다. 연간 30만 명이 채 안 되던 방문객이 2004년에는 160만 명, 2012년에는 260만 명으로 폭증, 한류관광의 발원지로 급부상했다. 어느새 관광춘천의 보물단지로 떠올랐다. 그 변화의 중심에 강우현 전 사장(현 탐나라 상상그룹 회장)이라는 걸출한 경영인이 있었다. 지금은 그 바톤을 평생 동안 남이섬 지킴이로 살아온 전명준 현 사장(공감경영 대상 CEO상 등 수상)이 이어가고 있다.

동화 속 풍경의 “나미나라공화국”

남이섬에 들른 날은 날씨가 무척 추운 12월 중순 주말 오후 2시께였다. 넓은 주차장에 의외로 버스와 승용차가 꽉 들어차 있었다. 매표소와 선착장에는 입장과 승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한참을 기다리다 배에 올랐다. 높이 80m 타워에서 1분 만에 남이섬에 닿는 쥘와이어를 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육지에 빼곡한 주변의 이색 펜션과 음식점 상가 밀집지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4~5분 남짓 배를 타고 선착장인 나미나루에 도착했다.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입간판과 ‘입춘대길문’이 방문을 반겼다. 입구의 남이 장군 묘역을 둘러보고 조금 걷다 보니 이번에는 남이섬의 트레이드마크인 ‘겨울연가’ 주인공들이 걸었던 메타세쿼이아 숲이 나왔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쪽쪽 뻗어있다. 영원한 사랑과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웨딩촬영의 명소이다.

섬 중앙에 이르자 이번에는 길 옆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나왔다. 도서관과 갤러리, 매직박스, 기념품상 식당과 카페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널려 있었다.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로 된 인사말 입간판 앞에서는 자국



2016년 2월 10일 설 연휴 마지막날, 남이섬을 찾은 시민들과 춘절을 맞아 한류관광을 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自國)의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렸다. 소주병을 재활용해 아름답게 꾸민 이슬정원 주변에는 섬의 주요 동선을 이어놓은 꼬마열차(유니세프 나눔열차)가 기차길을 내달렸다.

중앙광장에 있는 은행나무 길과 강변을 따라서는 자작나무와 갈대숲길이 뻗어 있다. 예술가들이 호텔과 콘도식으로 방을 꾸몄다는 정관루라는 부띠끄 호텔은 철따라 각종 이벤트를 여는 곳이다. 노래마울과 행복마을에는 문화의 향기가 풍기는 갤러리, 박물관, 북카페가 들어서 갖가지 예술작품과 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직접 작품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방도 여러 곳이었다. 그리고 쉼터에는 어느 곳이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화톳불이 온기를 전했다. 딱히 내세울 것은 아니어도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로 한나절 방문하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마치 영화 해리포터나 동화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들었다.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든 직원들의 노력

남이섬 정재우 팀장에게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느냐”고 물었다.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관광지를 꾸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때묻지 않은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항상 내방객 입장에서 400여 직원들이 톡톡 뭉쳐 친절하고 정성껏 배려하는 것”이라고 비결을 꼽았다.

꽃과 나무를 심어 숲과 정원을 가꾸면서도 농약을 쓰

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마시고 버린 소주병과 쓰레기조차 모두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되어 있는 리베이트(일명 수수료)도 없다. 직원들의 직급과 관념적인 인사제도를 없애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장수 시대에 평생직장을 실현해 노·사 간의 엇박자나 다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새작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젊은이들에게는 모험과 낭만을, 장년층에게는 휴식과 추억을 안겨줘 남이섬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살갑다. 만국기를 게양하고 외국인 인사말을 그 나라 글씨로 써 놓고 책까지 비치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심지어 할랄 공인식당과 무슬림 기도실까지 운영 중이다. 쇼팽이나 바가지요금으로 느끼게 되는 빠들어진 상술은 뿌리부터 근절돼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관광객 입장에서 배려하는 걸 최우선으로 친다. 이런 소소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중국의 사드 보복과 불경기 속에서도 남이섬 투어의 엄청난 관광객 흡입력이 생겨 지금도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인어공주상이 작별을 알려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올 때 바닥에 새겨진 ‘다시 만나요’라는 글씨가 긴 여운을 남겼다. ●



글 김길소 (본지 편집위원·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사진 강원일보사

춘천 태생으로 1970년 강원일보사에 입사. 편집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취재했다.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 전무이사를 지낸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영세불망비, 벼슬아치들의 성적표

목민관(牧民官). 백성을 보살피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급인 관찰사와 목사, 시장급인 부사와 군수 등이 그에 해당한다. 예전에 고을을 다스리던 관료가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고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재임 중 베푼 치적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돌에 이름을 새겨 세웠다. 감사와 칭송의 증표인 치적비(治績碑), 송덕비(頌德碑), 선정비(善政碑)라고 부르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였다.

전통도시마다 옛 관청 앞이나 고을 입구 또는 향교, 서원 앞에 비바람에 훼손되어 가는 비석 무리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고장 춘천도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는 고장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비석들이 곳곳에 있다.

비석은 일반적으로 앞면에 이름을 적고 뒷면에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다. 하지만 목민관들의 영세불망비는 대체로 행적은 기록하지 않고 앞면에 대상자의 직함과 그 아래 이름을 쓴 뒤 맨 밑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축약한 글로 마무리하고 뒷면에는 건립 시기만을 쓰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현재 춘천에는 약 35기의 목민관비가 파악된다. 그중 대표적으로 소양로 비석군에 25기가 집중 보호되고 있으며, 소양강변 바위면에 새긴 마애비 4기, 춘천향교에 2기, 남산면 광판리에 1기, 서면 덕두원리 석파령길 입구에 1기, 천전초등학교 운동장에 2기가 있다. 소양로 비석군이 형성된 것은 옛 소양정 주변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1940년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다.

우리 고장 영세불망비의 주인공들은 관찰사나 부사, 군수의 직함을 가졌던 이들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지방의 도적을 단속하는 토포사(討捕使)의 영세불망비도 하나 있다. 치적이나 행적에 따라 좋은 정치를 베푼 것이라면 선정비(善政碑)로, 교육에 힘을 쓴 이는 흥학비(興學碑), 특별히 백성을 사랑한 이는 애민비(愛民碑)라고 했고, 청렴한 목민관에게는 청덕비(淸德碑), 청백비(淸白碑), 송덕비(頌德碑) 등을 사용했으며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쳐 새기기도 했다.

모두 다 그의 덕이나 공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세운 흔적이자 자취이다. 사실 처음에 이러한 비석을 세운 취지는 정말 고을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미풍약속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치세(治世)의 상징물로 부각되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학정(虐政)을 일삼은 관료는 자기가 떠난 후에 비평이 두렵거나 자기의 치적을 포장하기



춘천군수 장헌근 모성비
(춘천향교 내)
일제강점기



춘천부사 임황 흥학비
(춘천향교 내)
1646년



관찰사선정비
(신북읍 천전초교 내)
제작년도 미상

1, 2 소양로 비석군은 조선 후기 춘천에 부임했던 관리들의 공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주로 소양강변) 것을 1940년대와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옮겨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때 중장비로 옮기면서 비석이 많이 훼손돼 비좌는 시멘트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3 마애선정비 (소양1교 인근 옛 소양정 암벽)



위해 주민들 돈을 거둬 스스로 비석을 세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이 수령의 선정에 감동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강제로 세운 비석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춘천에 있는 선정비들의 주인공들은 학정을 일삼았거나 주민을 괴롭혀 세웠다는 기록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에 다행으로 여길 만도 하겠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지방관들이 한곳에 오래 머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체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재임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룬 공적이라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나 실제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석이 대부분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소양로 비석군이 있는 곳을 비석거리라고 부르나 사실 춘천의 비석거리는 옛 한국은행 춘천지점(소양로 118 본동)이 있던 곳에서 서부시장까지의 큰 도로변을 말했다.

이곳에 2기의 비각(碑閣)이 존재하였는데 아랫 비각, 윗 비각으로 불렸으며, 이 비각 앞에서 춘천의 대표적 대동 민속놀이였던 기줄다리가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고 그저 구전과 간략한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명예롭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요즘 뉴스를 통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면서 목전의 이익이나 명예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라는 교훈을 생각한다.

이제 목민관을 선택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到來)하고 있다. 예전처럼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기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들의 공약을 살피고 실천의지를 파악해 임기를 마쳤을 때 그의 이름 아래 부기할 공적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글·사진 **심창섭** (본지 편집위원 · 춘천문인협회장)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춘천시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다 2006년 정년퇴직. 사라져 가는 춘천의 풍경과 민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기록 중이다. 포토에세이 <<때론 그리움이 그림다>>를 썼다.



사진 : 김호섭 - 북천별일주 (가장 작은 동심원이 북극성이다.)

우주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북극성(Polaris)



바야흐로 융복합인재상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최근 TV 속의 예능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이제는 몸으로 웃기는 시대는 가고, 예능프로그램이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지식예능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 방송과 같은 지적인 유희도 볼 만하다는 것이 높은 시청률로도 증명하듯 말이다. 그렇다면 천문학 분야는 어떨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도는 운행의 원리를 안다고 일상에 하나 도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우주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 속의 천문학은 의외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지식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중심, 북극성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북극성(Polaris)이다. 북극성은 작은곰자리 꼬리 끝에 위치한 별로 작은곰자리는 북두칠성이 포함된 큰곰자리보다 별자리가 다소 어두워서 온전히 찾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북극성만큼은 북반구에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별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필자가 별관측소를 9년째 운영하면서 느낀 북극성에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풀고 넘어 갈까 한다.

첫째, 북극성은 매우 밝을 것이다? 정답은 아니오. 북극성은 거의 정확하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별이지 사실 밝기와는 별로 상관없다. 북극성은 2등성 중에서도 좀 어두운 편에 속하며 도시 근교에서 밤하늘을 보았을 때, 전문가들도 직관적으로 선뜻 찾기가 쉽지 않다. 밤하늘에는 북극성보다 밝은 별이 50개 정도 더 있기에 필자 같은 별쟁이들도 밤하늘 사진 찍으러 출사를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된다.

둘째, 북극성의 고도는 높을 것이다? 이 역시 아니오이다. 별손님들께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주문을 하면 대부분 높은 하늘부터 올려본다. 북극성의 고도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의 위도와 일치한다. 즉, 춘천은 대략 37도 정도의 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극성도 지표면으로부터 37도상에 위치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면 고도가 생각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 상상하면 북극(90도)에서 북극성을 보면 천정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보일 것이고, 적도지방(0도)에 가면 수평선에 닿아서 관측이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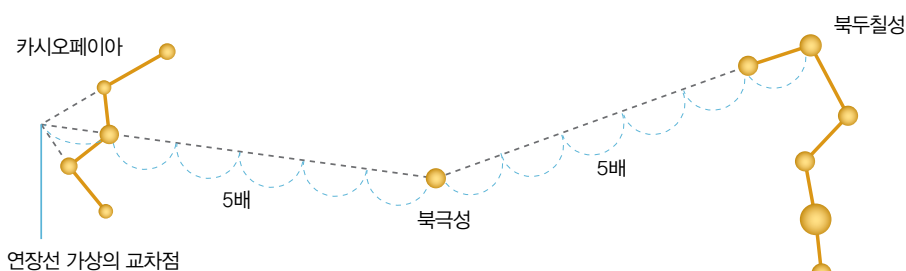
북극성?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부터 찾자!

그러면 북극성은 어떻게 쉽게 찾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좋아하는 2개의 국민별자리, 즉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밝지 않은 북극성을 직관적으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비교적 눈에 잘 띄는 두 개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이 있다. 1월 달에는 초저녁에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고 카시오페이아자리만 보인다. 즉, 두 개의 별자리 중 보이는 별자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연중 보인다는 사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밤 9시를 기준으로 봄, 여름철에는 북두칠성을 이용해 찾고 가을, 겨울철에는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나마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 쉬운 북극성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담 남반구는 어떨까? 우리 기준으로 지구 아래쪽이므로 그쪽도 남극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쉽게도 북극성만큼 빛나는 남극성이 남반구에는 없다. 그래서 가상의 남극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천구상의 북극점이나 남극점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인 항해의 도구가 없던 옛날에는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 파도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자칫 방향 감각을 잃으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북극성이다. 태양도 뜨고 지는 위치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 천문에 무지한 어부들조차 다른 건 몰라도 북극성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출항하고 귀항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북극성도 지구의 세차운동이라고 부르

는 약 2만 6,000년을 주기로 계속 바뀐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앞으로 수 천 년 동안 현재의 폴라리스가 북극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북극성 찾는 법을 백 번 읽어봐도 소용없다. 밤하늘에서 직접 눈으로 찾아봐야 의미가 있으므로 오늘 밤 북극성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는 기쁨을 누리보자. 



김호섭 (강원도청소년수련원 별관측소 소장)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고, 통신 관련 대기업에서 17년간 근무했으나 뜻한 바(?) 있어 박차고 나와 늦깎이 별쟁이가 됐다. 2017년 대한민국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칠레은하수 영상으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 『밤하늘의 별 이야기(파란정원)』가 있다. gystar.co.kr(강원도청소년수련원 별관측소 홈페이지)



사진설명 : "남이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가 진짜 봉사"라는 한샘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동행' 학생들.

(앞줄 왼쪽부터 서예림(1학년), 조연경(2학년), 백소연(3학년), 홍정은, 나보은(이하 1학년) 뒷줄 왼쪽부터 엄기훈(동아리 담당교사), 배은주, 최연희, 최지원(이하 2학년), 김민정(1학년))

할아버지
할머니 손과 발이
너무 아름다워요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지역사회 어르신과 나눔
네일아트와 발마사지로 재능기부

봉사는 보상 없이 도와주거나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한샘고등학교(교장 김성태) 봉사동아리
'동행'의 봉사활동을 따라가 보았다.

봉사가 재미있는 아이들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소양2가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 도착한 한샘고등학교 화장품응용과학과 봉사동아리 ‘동행’ 학생들이 분주하다.

‘동행’을 지도하고 있는 엄기훈(50) 교사의 차에서 발 관리 도구와 네일아트 도구 등을 챙겨 잔걸음으로 경로당으로 향한다. 아침부터 학생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여유를 부릴 수 없다. 학생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난 듯 좋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맘이 가득한 아이들이다.

한 쪽에 상을 펴고 손톱관리 도구를 꺼내 준비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족욕기에 물을 담아 소파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께 간다. 어르신들은 10분 정도 족욕기에 발을 담근 후 발마사지를 받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손톱관리를 해드리고 발마사지를 하며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

66

주름진 손과 빠뜨어진 손가락, 다리의 수술 자국을 보며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많아요. 참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배은주(2학년) 양

99



66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드리게 되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돼요.

최연희(2학년) 양

99



어르신들 손과 발에서 인생을 배워요.

손과 발이 이쁜 어르신이 얼마나 될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한평생을 살아내며 주름지고 비뚤어지고 상처가 남았다.

한창 때인 아이들의 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남아 있어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그 어느 누구의 손보다 아름답다.

네일아트를 처음 해보셨다며 초라한 내 손이 이뻐졌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도 한다.

봉사를 끝내고 나올 때 고맙다고 사탕도 주시고 안아주시며 배웅까지 해주시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에서 학생들은 감동을 받고 봉사의 매력에 빠지기도 한다.

66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참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작은 일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백소연(3학년) 양

99

그 시작은 작았으나 그 끝은 더 커지길 바라

‘동행’은 2015년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조직되었다. 봉사를 위해 학생들은 네일아트와 발관리를 배웠다.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엄기훈 교사는 “봉사활동을 하며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치매와 관계가 없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의 자그마한 손과 마음이 어르신들을 어루만져 드리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함께 웃으며 학생들도 더욱 자라고 있다” 이야기했다. 

볼내 기업탐방



제이앤피엠LLC직원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장동철 연구원, 조이슬 홍보마케팅주임, 유제민 연구원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희선 홍보마케팅팀장, 김연진 연구원, 권성필 대표, 이상석 개발공정부장)

유기농화장품 생산기업 제이앤피엠LLC

먹을 수 있어야 안전한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미국과 유럽서 인증받아 판매
의학화장품 개발통해 세계시장에도 도전장

제이앤피엠LLC(대표 권성필)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한다’라는 목적과 ‘제이앤피엠 제품을 전 세계시장으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3년부터 유기농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국가기준인 USDA NOP 인증(미국농무성 유기농 인증)과 유럽유기농 화장품 기준인 COSMOS인증을 받았다. 제이앤피엠LLC는 2013년부터 의학적으로 검증 거친 화장품(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닥터더마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에 인증을 받은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유기농화장품 ‘Truly lab’을 출시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제이앤피엠LLC 대표
권성필(50)

차별화를 통한 시장공략

권성필(50) 대표는 2002년 천연물 소재를 이용해 항암제와 기능성식품소재, 화장품소재 등을 연구·개발하는 벤처기업 창립멤버로 춘천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만해도 바이오관련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드물었다.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자재를 저렴하게 운용하고 생산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벤처기업 창업에 최적지였다. 권 대표는 천연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소재 개발을 담당했었다. 2013년 화장품 천연소재 파트가 분리 독립하며 제이앤팜LLC를 창업했다. 이름도 생소한 벤처기업으로 화장품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했다. 틈새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던 유기농화장품을 연구·개발로 사업방향을 잡았다. 다른 업체와 차별화로 병원에서만 판매되는 화장품이라는 마케팅전략을 세워 ‘닥터더마치’를 생산·판매를 시작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인 ‘닥터더마치’는 피부보호막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단백질을 피부 속 진피층까지 전달해 세포 재생효과를 가진 천연화장품이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기능이 입증된 화장품을 말한다. ‘닥터더마치’는 대학병원(3차 진료기관)에서 처방받아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오늘날 화장품은 미용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개선과 예방효과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전문성 검증이 이루어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약 46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앤팜LLC는 창업초기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태국 등 동남아시를 개척하는 등 꾸준하게 세계 코스메슈티컬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닥터더마치’는 현재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료용으로 처방해 판매되며 국내 외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 2018년부터 유럽에서 20여종의 유기농 완제품 인증을 마친 유기농화장품 ‘Truly lab’를 출시할 예정이다.



제이앤팜LLC가 2018년부터 출시예정인 ‘Truly lab’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성장발전

제이앤팜LLC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비즈니스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유관연구기관 및 동종의 다양한 회사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교류를 통해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 권 대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바이오산업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성장하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 INTERVIEW ·

도전을 멈추지 않는 회사가 좋아요.

“성격이 활동적이라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대표님이 도전정신을 존중해 주셔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좋아요. 2018년 출시하는 유기농화장품 ‘Truly lab’도 끊임없는 도전의 완성품이라 기대가 돼요. 제품 콘셉트를 대표님과 직원들이 1년 넘게 상의하며 만들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 출시 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가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모두 함께 한발 나갔다고 생각해요. 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4년 동안 일하며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멋진 회사를 꿈꿔봅니다.”



조이슬(29)
홍보마케팅 주임

제이앤팜LLC

주소	춘천시 소양강로 32 (후평동) 307호
연락처	☎ 258-6365
홈페이지	http://www.trulylab.co.kr
주요생산품	병원처방화장품 ‘닥터더마치’, 유기농화장품 ‘Truly lab’



번개시장 옛 명성 찾기 위해 노력

도시재생센터와 상인들 합심, 야시장 활성화

번개시장 상인회와 현지주민들이 소양로 번개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번개시장의 낙후 원인과 재기에 따른 연구와 검토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양로 번개시장은 6·25 한국전쟁 후 서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나룻배로 실어와 판매하며 생겨났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화천, 가평, 홍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으로 번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며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농산물 유통도 줄어들며 생기를 잃어 버리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번개시장 상인회는 30년 이상 된 상가건물 리모델링과 노후간판을 개선하고 진입로를 정비해 시장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번개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야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양로 비석거리 부근에 ‘박희선 조각가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겨울밤을 수놓은 영혼의 울림

2017 강원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12월 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7 강원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려 겨울밤을 음악으로 수놓았다. 강원교사합창단(지휘 김태영)은 합창 음악 확산을 통해 아름답고 바른 인성과 화합, 교육의 유기적 역할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창단했다. 2010년 2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가지고 매년 춘천과 원주에서 한 차례씩 정기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에서 근무하는 60여명의 단원들이 함께 모여 연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기공연을 마치고 받는 친지와 가족, 관객들의 박수와 격려가 단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공연 후 단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며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 정기공연에는 제23회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우석중학교 ‘이든합창단(지휘



백서윤)’이 출연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강원교사합창단은 2015년 정선아리랑제 초청공연을 비롯해 매년 전국교사합창제에 참가하고 있다. 강원교사합창단은 앞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학교와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명종 단장은 “각박하고 힘든 삶에 시달려 온 시민들과 수능으로 지쳐있는 수험생들이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육림고개 이색가게



무지개빛 '꼬뽀이 식빵'

육림고개에 조그마한 식빵가게가 있다. 2016년 10월 문을 연 '꼬뽀이식빵'은 천연색소와 무방부제, 버터로 만든 무지개 식빵과 오징어 먹물로 만든 감장식빵이 유명하다. 한지공예를 전공했던 권성기 대표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꼬뽀이'라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숍을 운영했었다. 춘천으로 와 서면에 '꼬뽀이' 공방&카페를 열었다. 음료와 함께 곁들일 디저트를 연구하던 권 씨는 대만에서 유행하던 수박식빵에서 영감을 얻어 무지개식빵을 만들게 되었다. 육림고개 플라마켓과 똑방마켓에서 식빵을 판매하다 지금의 식빵집을 열게 되었다. 권 씨는 "앞으로 이 자리를 오래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것이 목표"라며 소박한 꿈을 밝혔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일요일 휴무)

문의전화 | 010-2546-7535



한약방과 카페의 변신 '처방전'

육림고개를 지나다 보면 한방카페 '처방전'이 있다. 2016년 2월 문을 연 '처방전'은 다른 한방카페와 다르게 실제 한약사인 신승택 씨가 한약과 차를 연구 개발한 퓨전 한방차를 파는 곳이다. 35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한 신 씨는 "한약에 대한 젊은층의 편견을 없애고,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퓨전한방 카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처방전' 한편에는 11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현대한약방'이 자리 잡고 있다. '처방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맛과 효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신 씨의 오랜 고민 끝에 이뤄낸 결과이다. '처방전'은 퓨전 한방차 외에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팔고 있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문의전화 | 251-8179

정승환 명예시민기자



일러스트 정광순

공지천 추억이 되살아나다

2017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이 공지천 의암공원 일원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개막해 이번 달 1일까지 열린다.

축제는 그랜드오픈, 평창동계올림픽 in 춘천, 로맨틱 화이트크리스마스, 아듀 2017 Happy New Year, Welcome to 무술년 등의 5개 테마로 진행되었다. 부대행사로 추억의 전시관(오락기구, 만화방), 춘천갤러리(사진전시), 7080공연, 전통놀이, 이색 빙상대회(복불복 썰매, 아이스하키 골인) 등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개장한 아이스링크는 이번 달 28일까지 운영된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책을 읽으며 나를 바라보는 시간

소양도서관 성인독서회 '아중독(아름다운 중년들의 독서모임)'

후평동 소양강변에 위치한 시립소양도서관에는 격주 금요일 아침마다 책 읽는 중년이 모인다. 소양도서관 성인독서회인 아름다운 중년들의 독서모임, 일명 '아중독'이다. 주로 40대부터 60대까지 사업가, 영어강사, 상담사, 주부, 독서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중년 10여 명이 2주에 한 번씩 모여 책을 통해 인연을 맺고 있다.

취재차 찾아갔던 12월 모임의 주인공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 저자 폴 칼라니티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환자를 마주한 일과 암 환자로서 병을 마주한 살아온 이야기다. 각자 책을 읽고 땀땀이 써온 노트를 꺼내 느낀 점을 얘기할 때에는 모임에 참석한 각각의 삶의 경험과 맞물려 감동을 자아냈다. 삶에 녹아든 진심 때문이었을 게다.

'아중독'은 4년 전, 김희경 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간이 마련되고 모임이 정례화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그 덕분인지 수필가로 등단한 이도 두 명이나 된다. 지난해 수필가로 등단한 최정화씨는 "아중독을 통해 좋은 글을 읽으며 나만의 경험, 나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수필가로 등단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역시 같은 해 등단한 정미자 씨는 "아중독을 통해 책을 읽는 재미가 더 커졌고 다양한 느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던 점이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70, 80세가 넘어도 아중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중독'은 현재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우두동의 강원명진학교 등 책읽기 봉사도 함께 해오고 있다. 모임을 연 후 지금도 활동 중인 김희경 씨는 "소설 속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나와 서로를 바라보며 책 속의 생각들과 마주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모임"이라고 전했다. 가입문의 ☎245-5145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애니메이션박물관 잠시 휴식

시설 새단장하고 7월 재개관

애니메이션박물관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물을 교체하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면 휴관한다.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관람객 편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교육,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을 넓힌다. 역사 코너와 주 전시관은 단조로운 현재 스크린 전시 방식을 다양한 크기로 교체,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느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핀 스크린' 체험을 늘리고 애니메이션 체험 코너를 새로 설치한다. 공사 기간 중 토이로봇관과 갤러리튼은 정상 운영한다. 7월 재개관 예정.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45-6470

김정은 명예시민기자



평화의 소녀상 춘천에서 제막

춘천 출신 김운성·김서경 부부 제작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지난 12월 9일 오후 1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열렸다. 춘천 출신 김운성(성수고·중앙대 조소과) 작가와 부인 김서경 작가가 제작했다. 김 작가 부부는 지난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춘천시민 6,000여 명의 정성 8,000만원이 모여 평화의 소녀상이 춘천에 세워졌다. 이날 희망메시지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편지 쓰기, 종이나비 만들기, 소녀상과 함께 사진 찍기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배출방법 지키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안해요

배출량이 많아 용기뚜껑이 닫히지 않은 경우, 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비닐봉투 등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는 유료 칩이 부착된 전용 용기로 배출해야 한다.

춘천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배출 방법이 잘못된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배출 용기보다 용량이 많아 뚜껑이 닫히지 않은 경우, 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등은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하지 않은 이유를 적은 스티커를 부착, 민원을 줄이고 올바른 배출요령을 병행하며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일반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물을 제작, 안내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 ☎250-3129



왼쪽부터 송예근 군, 이미연 양, 김태호 군

“특성화고 입학 도리어 행운… 공무원 꿈 이뤘죠”

9급 공무원 고졸특채시험에서 합격한 소양고등학교 3명의 학생들

요즘 소양고등학교 김태호(3학년·자연생명과학과), 송예근(3학년·바이오식품가공과)군과 이미연(2017년 2월 졸업생)양의 기분은 하늘을 날 듯하다. 얼마 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처음 13명이 시작했지만 반 이상이 중도 포기할 만큼 힘든 도전을 견뎌내고 합격까지 하고 보니 지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중학교 2학년까지 게임에 빠져 성적이 바닥이었던 예근 군. “웬만한 고등학교엔 원서조차 내지 못할 나 자신을 보며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소양고등학교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하던 중 9급 행정공무원고졸특채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악물었어요. 특성화고에 입학한 게 도리어 행운이 된 거죠.”

송 군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다.

소양고등학교(교장 김종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3명의 농업직공무원을 배출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9급 공무원 고졸특채임용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학교에선 공무원반을

마로 운영하며 특별교육을 시켰고, 학생들은 밤을 새우며 공부에 전념했다.

김태호 군은 마라톤을 계속하고 싶어 동해 묵호중학교에서 소양고등학교로 유학 온 육상꿈나무였다. 2학년 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고 진로 고민을 하던 차에 감독의 권유로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군은 “11월 30일 최종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동해에서 수산업업을 하시는 부모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어쨌든 이번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매달렸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뻐요”라고 했다.

재수 끝에 꿈을 이룬 이미연 양은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아예 목표를 정했어요. 작년 응시에선 실패했지만 그 동안 공부해 왔던 게 너무 아까워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고 준비했죠. 공무원반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야간대학도 가고 진급도 빨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삼둥이 키우고 있어요”... 애교에 피로가 싹

삼둥이 아들, 여덟 살 딸 둔 조용호·김세원씨 가족

어린이집 교사 김세원(37)씨는 21개월 세쌍둥이 엄마이다. 주중 아침이면 남편 출근 준비, 초등학교 일학년 큰아이 등교 준비에 세 아이를 데리고 함께 본인 출근 준비까지...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다. 다행히도 가까운 데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세쌍둥이 씻기기, 옷 입히기, 아침 먹이기 등등 신공을 보여주신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시어머니의 도움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이다 보니 같은 반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돌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세쌍둥이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개원 이래 세쌍둥이는 처음이라 지역신문에 떠들썩하게 실렸단다.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는 흔치 않은 일이라 의아해했더니 아빠 조용호(41)씨 친가 쪽으로 쌍둥이 형제가 많다고 한다. “갓난아기 때는 사실 구별이 어려웠어요. 젖병부터 쪽쪽이까지 물건에 이름을 써놓아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각자 개성도 있고 확실히 다른 점이 보여요. 첫째 아이 시현이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면서 야무져요. 둘째 승현이는 막무가내죠. 그대로 돌진하는 아이. 그런데 성격이 정말 좋아요. 막내 상현이는 애교쟁이예요. 반면 칭얼거리고 엄살도 심하고, 제 나이가 서른일곱인데 젊지는 않잖아요? 늦게 육아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 크는 거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삼둥이’ 덕분에 가족 외출은 언감생심.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엔 옷 입히기도 일이다. 결국 아이 한명 씩 교대로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부부가 찾은 외출 비법. 요즘은 ‘자기 것’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내거야 내거’ 하며 서로 뺏고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세 개죠.”

저마다 개성을 띠며 잘 크고 있지만 부부에게는 고충도 그만큼 커지는 듯하다. “아이들 어릴 때는 분유나 기저귀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크니까 우유, 간식 등에 지출이 많아졌어요. 뭐든지 세 배니까. 나라에서는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정작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평일에는 자리가 거의 없어 주말에 급히 외출할 때만 겨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많이 낳으라는 말보다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쉬운 요즘이다.

큰 아이 민서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린 동생들 때문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엄마 세원 씨. 누나 민서는 세쌍둥이 동생에게 과자 하나씩 입에 물려주고 아빠는 세쌍둥이 간식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 아는 지 모르는 지 아들 셋은 제각각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어느 가정집의 저녁 풍경이다.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왼쪽부터)엄마 김세원, 삼둥이 첫째 시현 둘째 승현 셋째 상현
누나 민서, 아빠 조용호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최 서 원 아가(아들)

2016년 3월 24일 탄생

부모 | 최병욱(아빠), 김지혜(엄마) | 석사동
태명 | 까민이(까칠하고 예민한 아이 줄임말)
태몽 | 뿔이 화려한 사슴이 들판에 서있는 꿈

서원의 탄생이야기

산부인과를 다니며 어렵게 갖게 되었는데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한 번 입원하고 유선염으로 두 번의 입원치료를 받으며 배 속에서 고생이 많았어요. 다행히 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잠투정이 심하고 마구 뛰어다니며 엄마에게 나름의 복수(^^)를 하고 있지만 밥 잘 먹고 형아를 좋아하며 잘 크고 있습니다.

서원에게 바라는 것

6살 형아와 즐겁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직장 탓에 많은 시간을 놓아주지는 못하지만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커주길 바랄게.
 서원아~ 많이 많이 사랑해.



최 지 우 아가(딸)

2015년 9월 2일 탄생

부모 | 최창규(아빠), 박은희(엄마) | 효자동
태명 | 지우(엄마가 배우 최지우 팬)
태몽 | 엄청 크고 귀여운 뱀이랑 같이 수영하는 꿈

지우의 탄생이야기

신혼을 오래 즐기고 싶었던 우리는 3년 만에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 해 바로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자연주의 출산으로 탄생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같이 출산하고 싶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지우는 탄생하는 순간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나 당황하긴 했지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내 생애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바라는 것

배 속에 있던 열 달 동안 아무 탈 없이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엄마 힘들지 않게 짧은 진통으로 태어난 것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하루 늘 건강하고 밝고 지혜롭게 커주길 바랄게. 늘 곁에서 지우를 응원하고 너의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을 거야. 두 돌 축하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지우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탄생 이야기, 바라는 것, 연락처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7만원)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기는 출생 후 ~ 24개월 전후 즈음 아이입니다.).

접수 이메일 | ccc3@korea.kr



권 아 름 아가(딸)

2016년 6월 8일 탄생

부모 | 권순후(아빠), 이희진(엄마) | 후평동

태명 | 까꿍이

태몽 | 황금트로피

아린이의 탄생이야기

큰아이 둘 때쯤 둘째를 임신했어요.
큰아이 돌보느라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여서 유산방지역에 입덧도 심했지만 까꿍이는 배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답니다.
그리고 3.0kg으로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죠. 둘째지만 또 신기하고 또 감격스럽네요.
힘들 때도 많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아린이에게 바라는 것

아린아, 지금처럼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는 아린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너의 존재만으로 아빠 엄마에게 큰 힘이 된단다.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아빠 엄마는 윤우랑 아린이 많이 사랑해^^



현 이 환 아가(아들)

2016년 1월 20일 탄생

부모 | 현상진(아빠), 김우미(엄마) | 동내면

태명 | 누엘이

태몽 | 커다란 알밤을 5개 잡는 꿈

이환이의 탄생이야기

둘째를 꼭 딸로 갖고 싶어서 노력하던 중 꿈에서 정말 반질반질한 알밤을 5개 잡았어요. 그리고 확인한 임신!
태몽은 딸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아들이었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가시 있는 밤송이는 딸이고, 껍질이 까진 알밤은 돈 잘버는 아들이라네요. 아들 둘 맘이 되었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의 모습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임신했을 때도 태동도 없이 조용했고, 태어날 때도 30분 만에 획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밥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 효자랍니다.

이환이에게 바라는 것

형 태명은 ‘임마’, 이환이 태몽은 ‘누엘이’이야. 형과 너가 임마누엘이라는 태명처럼 축복 속에 건강하고 티없이 밝은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고맙단다. 효리 누나 말대로 훌륭한 사람 되길 않아도 돼. 그냥 아무나 되도 된단다. 엄마와 아빠가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할게. 파이팅!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송 윤 준 아가(아들)

2017년 4월 17일 탄생

부모 | 송상용(아빠), 안정미(엄마) | 동면
태명 | 축복이
태몽 | 큰 거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윤준이의 탄생이야기

2008년에 부산에서 결혼하고 첫째를 낳았습니다.
 2009년에 남편 직장이 춘천으로 잡혀서 이사왔어요.
 둘째는 2011년에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춘천에 살면서 적응도 되고 2015년 겨울부터 셋째가 갖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작년에 가지기로 마음먹고 임신하여 올해 윤준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입니다. 태명이 축복이라서 그런지 항상 소리내면서 웃으면 주위 분들이 다들 귀여워합니다. 2.8kg에 낳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먹어서 지금은 건강하고 키도 크고 튼튼합니다.
 윤준이가 태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복덩이예요!

윤준이에게 바라는 것

항상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라.
 행복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란다. 우리 윤준이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요.



박 로 빈 아가(딸)

2015년 6월 23일 탄생

부모 | 박재관(아빠) 송원경(엄마) | 석사동
태명 | 믿음
태몽 | 없어요

로빈이 탄생이야기

2년만 아기 없이 신혼생활을 즐기고 예쁜 아기 갖자 했는데 정말 계획한 대로 아기가 생겼어요. 계획해서 아기를 갖다 보니 미리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으면서 입덧 한번 없이 임신 기간 동안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배 속에 잘 있다가 태어났어요. 막달에 뒤집히는 바람에 제왕절개를 했지만 이마저도 반전녀라면서 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커갈수록 넘 이뻐서 동생도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로빈에게 바라는 것

지금도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넘 고맙고 감사하단다. 자는 모습도 노는 모습도 먹는 모습도 넘 예뻐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다면 바로 너의 모습이 아닐까 싶단다. 엄마 아빠에게 힐링이 되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귀한 로빈.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탄생 이야기, 바라는 것, 연락처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7만원)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기는 출생 후 ~ 24개월 전후 즈음 아이입니다.).

접수 이메일 | ccc3@korea.kr



이 도 운 아가(아들)

2017년 4월 12일 탄생

부모 | 이승훈(아빠), 민선옥(엄마) | 소양동

태명 | 축복이

태몽 | 새끼 백호가 엄마에게 달려드는 꿈

도운이 탄생이야기

2016년 6월에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생각되어 태명을 ‘축복이’로 하였습니다.

도운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난산을 하여 아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태어난 도운이가 너무 기특하고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운이는 어느덧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날이 성장하고 엄마, 아빠를 보며 미소 짓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사는 맛이 나네요^^

도운이에게 바라는 것

얼마 전 로타바이러스로 힘들었던 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다. 아빠, 엄마 눈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예쁜 아들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고, 사랑한다. 도운아~



유 찬 우 아가(아들)

2016년 11월 4일 탄생

부모 | 유지운(아빠), 김희경(엄마) | 후평동

태명 | 튼튼이

태몽 | 초록색 개구리들이 다리를 감싸고 있는 꿈

찬우 탄생이야기

결혼 후 한 번의 아픔을 겪고 태어난 튼튼한 찬우. 초기에 유산된거라 튼튼하게 자라라고 태명을 튼튼이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신기하게 딱 40주 되던 날 3.38kg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던 날도 엄마 고생할까봐 4시간만에 순풍 나와준 기특한 찬우랍니다. 양가에 첫 손주라 사랑도 듬뿍 받고, 찬우로 인해 집안에 웃음이 더욱 더 많아져 너무 행복합니다.

찬우에게 바라는 것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생일이 지났네. 요즘 애교도 많아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너의 모습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한편으론 커가는 게 이쉽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 앞으로도 우리 가족 하하호호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세요



중학생 남준이가 반듯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딱딱한 살림살이 엄마까지 돌봐

8살 때 아버지를 여읜 남준이(가명·15세)는 삶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어 성적은 바닥을 쳤고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도는 엄마가 밍고 싶지만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밥을 안치고 국을 데웁니다. 군대 가 있는 형을 대신해 엄마를 돌볼 사람은 하늘 아래 남준이가 유일합니다.

치아교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준이는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입을 가립니다. 남들이 비뚤게 틀어진 치아를 볼까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치과에 가고 싶어도 딱딱한 살림살이에 비싼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벋들과 어우렁더우렁 지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준이가 반듯한 치아로 자신감을 회복하여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모아주세요.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금슬 좋은 길남씨에게 건강한 인생을 선물해 주세요

윗니가 모두 빠져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길남씨(가명·57세)는 밥상에 앉는 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당뇨로 인해 윗니를 모두 뽑아냈기에 씹을 수도 으깬 수도 없는 식사시간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빵을 물에 적셔 먹거나 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지라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몸이 성치 않아 뱃속은 더부룩하고 머리는 송곳이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틀니가 꼭 필요합니다.

자식들 형편 생각하느라 치아에 대해선 걱정 말라 하지만 내심 누군가 도와줬음 하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발 한 끼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길남씨에게 틀니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든 현실에도 대강포진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사랑하는 여보야, 아픈 건 다 나 줘.”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선한 길남씨에게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 상 자 | 이남준(가명, 15세 후평3동),
김길남(가명, 57세 후평3동)

모금기간 | 2018.1.1. ~ 1.31. (1개월)

목표금액 | 780만원(치과치료비),
200만원(치과치료비)

모금계좌 | 농협 203-01-548843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방법 | 후원 000 (입금자 성명)

후원문의 | 시 복지정책과 (033-250-3750)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033-244-5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19호 모금 결과

우리 시는 지난 12월 8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열아홉 번째 대상자 조*자(83세/조운동으로 이사)님께 의료비 및 간병비 6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겨울철 생활기상지수로 안전하게! ❄️

겨울철 생활기상지수로 안전하게 동파 예방하기

‘동파’란 동절기에 수도계량기가 얼거나 파손되어 지침 판독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며, ‘동파가능지수’는 기온과 일 최저 기온을 이용하여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 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동파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 1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는 한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영하 10℃ 이하 혹한이 계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하면 수도관 파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3 수도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을 잘 해야 합니다.

이달의 관심 기상 ‘한파’와 ‘온(溫)맵시’

‘한파’란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내려와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불면서 한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파주의보(경보) 10월~4월 중 다음에 해당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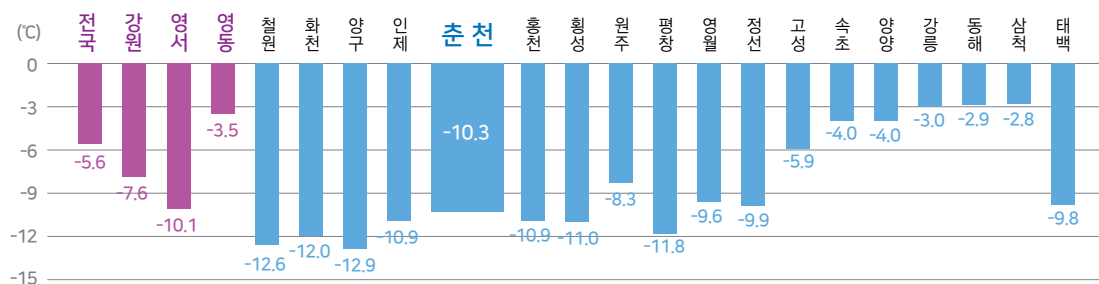
- 1 아침 최저기온이 날보다 10℃(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2 아침 최저기온이 -12℃(-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온(溫)맵시 : 옷 겹쳐 입기, 내복 입기, 따뜻한 겨울 소품 이용하기

온(溫)맵시 착용효과

-  체감온도 2.4℃ 증가
-  30년생 소나무 4억 5천만 그루 식목 효과
-  연간 304만톤 온실가스 감소 효과

전국 및 강원도 18개 시·군 1월 평균 최저기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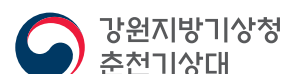


※전국 및 강원도의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45개 및 6개 지점 관측값을 사용함. *강원영서(춘천, 원주, 인제, 홍천), 강원영동(속초, 강릉)



나도 우리동네 날씨 관측관! 날씨제보앱으로 실시간 변하는 우리동네 날씨를 제보해 주세요.
(명예기상관측관 모집 신청서는 강원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본 내용은 춘천기상대 페이스북(@kma093)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할 어르신을 찾습니다!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월 26일(금) 사업설명회 및 면접표 배부

1월 말 ~ 2월 초순 기관별 개별 면접

설명회 및 면접표 배부 일시 : 2018. 1. 26.(금) 11:00 ~ 15:00

(※ 선착순모집 아님. 접수시간 준수요망. 준비서류 없음)

장소 : 춘천호반체육관(우석로 102, 애막골)

면접 : 1월 말 ~ 2월 초순(면접표에 쓰여 있는 일정과 장소 참조)

활동기간 : 1) 공익활동 : 9개월 2) 인력파견, 시장형 : 연중

모집인원 : 2,663여 명 (※모집인원 변동가능)

1) 공익활동 : 1,686여 명 2) 인력파견형 : 300명 3) 시장형 : 677여명

참여자격

– **공익활동** : 춘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공익활동 신청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가능

– **인력파견, 시장형** : 만 60세 이상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어르신

문의 춘천시니어클럽 ☎256-3005, 7005

춘천시 장수건강과 ☎250-3119





이런게 궁금해요

문. 1월 26일(금)에 준비서류 없이 가도 되나요?

답. 1월 26일은 말 그대로 2018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사업설명회이자 어르신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단의 면접표를 발급받는 날입니다. 받게 될 면접표에는 면접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1월 26일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시어 꼭 지원서와 면접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면접표 배부가 선착순입니까?

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언제 오시든 원하시는 사업단의 면접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인기 있는 사업단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문. 피치 못할 사정으로 1월 26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 안타깝게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문. 공익형과 시장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 간단하게 공익형은 봉사, 시장형은 수익창출형입니다. 월 30시간 이상 활동 기준으로 공익형은 월 27만원(고정), 시장형은 월 23만원 이상입니다. 시장형은 사업단 수익에 따라 추가 지급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면접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답. 사업설명회 때 받아놓은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어 면접표와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시장형 사업단 지원시에는 기초연금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문. 지원 최대치인 공익형 2군데, 시장형 1군데에 모두 지원하고 싶은데 면접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답. 모두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자리 순서를 정하여 면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단의 면접 일정을 살피시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최종 1군데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문.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현금 수급이 어려워 일자리를 원합니다. 참여할 수 있나요?

답. 의료급여와 주거혜택 등의 사회부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기에 안타깝게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춘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모집인원

●지원가능

○모집완료·지원불가

춘천 시니어클럽 (1,076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노노케어사업단	거동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59명
	● 공공시설봉사(신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50명
	● 은빛건강지킴이사업단	지역 내 시설에 방문하여 방역소독 및 환경정리	64명
	● 동물사랑사업단	춘천시동물센터에서 유기견 보호 및 환경정리	16명
	● 동년배지원사업단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기관안내 및 환경개선 활동	60명
파견형	● 인력뱅크사업단	전문교육을 통한 파견활동	150명
시 장 형	● 초등학교급식사업단	지역 내 초등학교 파견 급식활동 협조	120명
	● 이동스쿨존지킴이사업단	지역 내 아동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지역 교통정리 활동	20명
	● 동병상련사업단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 노인에게 대한 간병 활동	20명
	● 깨,콩농장사업단	깨, 콩 등 농작물 재배	30명
	● 함께하는꽃나눔사업단	지역 내 화환·화분 수거 및 판매	30명
	● EM비누사업단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EM(유용한 미생물) 싼뽀물발효액과 가공하여 비누 제조 판매	30명
	● 폐현수막재활용사업단	수거된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마대 및 앞치마 등 제작 납품	80명
	● 미니마켓동면점 사업단	춘천시니어클럽 총 생산물 마켓운영	30명
	● 미니마켓춘천점 사업단		30명
	● 우리콩두부사업단		30명
	● 쥐논이콩사업단	쥐논이콩을 뽕튀기하여 웰빙영양간식으로 판매하는 활동	30명
	● 우리방앗간사업단	참기름기계 및 고추방아를 이용한 생산물 판매	30명
	● 황금천사후평점사업단	현웃, 신발, 가방 등 재활용품 수거, 정리, 판매	30명
	● 황금천사석사점사업단		30명
	● 황금천사근화점사업단		30명
	● 아름다운식당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먹거리 (콩나물, 두부, 참기름, 청국장)를 이용한 음식판매	30명
	● 맛드림도시락사업단	어머니 손맛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락 판매	37명
	● 쥐논이콩나물밥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쥐논이콩나물을 활용하여 쥐논이콩나물밥 판매	20명
	● 추억의옛다방사업단	커피, 전통차, 음료 등을 제작하여 판매	20명

춘천동부 노인복지관 (638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아름다운동행사업단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외출동행, 투약보조, 인지재활교육	60명
	● 공공시설관리사업단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170명
	● 놀이터안전지킴이사업단	지역 내 공원 놀이터 유해환경 개선 및 이용아동 보호	150명
	○ 공중화장실관리사업단	지역 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관광지 안내	190명
	● 시니어체육활동지원사업단	복지관 내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활동 지도	12명
	● 시니어독딱이사업단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 개선 및 수리활동	12명
	●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단	교육기관 및 일반단체에 전통문화계승 활동	20명
	● 이야기문화지원사업단	교육기관 및 일반단체에 동화구연활동 및 인형극 실시	14명
	● 오로1,3세대통합지원사업단	지역 초등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을 위해 바둑, 한자를 접하는 기회제공	10명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540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단	경로당에 파견되어 식사지원, 주변 환경정리 활동	380명
	● 전담도우미	경로당 행정업무 및 전반적 업무보조, 행정정보 안내 등	10명
	● 자전거도로근린생활관리사업단	자전거도로 환경정리 및 관광객 안내	150명

봄내노인복지센터 (118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거리환경지킴이사업단	지역 내 거리환경개선 및 불법 전단지 제거 작업	75명
	● 참살이어울림터사업단	집 안 청소와 말벗, 가사 및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도모	43명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160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소양호가꿈이사업단	소양호 권역 내 부유물 수거 등의 관광지 환경 정비를 통한 환경 보존 활동	130명
	○ 소양호생명사랑지킴이사업단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홀몸노인의 방문 상담활동, 경로당 및 유관단체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	30명

광역취업지원센터 (150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파견형	● 인력파견사업단	전문교육을 통한 파견활동	150명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154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수지쑥뜸사업단	주1회 요보호노인 및 장애인 세대 방문하여 정서서비스와 병행하여 노인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수지쑥뜸을 해드림	30명
	● 마음보듬이사업단	지역 내 저소득 요보호 노인세대를 방문하여 말벗 및 환경개선서비스 제공	40명
	●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단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시설 및 아동보호 지원	84명

춘천남부노인복지관 (308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근린생활관리사업단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173명
	● 노노케어사업단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45명
	● 보육시설도우미사업단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원서비스 제공	90명

신규수행기관(예정) (288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 내용	인원
공익 활동	● 공공시설관리지원사업단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120명
	○ 노노케어사업단	이동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25명
공익 활동	● 공공시설관리지원사업단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주변 환경개선	143명



꿈자람물정원 겨울 썰매장 개장

겨울시즌을 맞아 옛 캠프페이지 꿈자람물정원의 썰매장을 계절 분위기에 맞게 단장했다.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는 썰매장 주변에 난방이 되는 텐트를 설치해 썰매장 이용 어린이와 따라온 부모를 위한 대기시설을 마련했다. 썰매장 주변에는 인공 제설기로 눈 동산을 만들어 겨울 분위기도 만들어낸다. 썰매장은 평소에는 지금처럼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눈이 오면 눈썰매장 그대로 운영된다. 꿈자람물정원에는 레고 놀이터, 트램펄린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

경관과 ☎ 250-3121



시립청소년도서관 누구나 이용가능!

옛 삼천동 시립도서관을 전면 개·보수, 지난해 10월 28일 문을 연 시립청소년도서관은 명칭은 청소년도서관이나 어린이, 어른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도서관에는 도서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 일반 도서관 기능 외에 600석의 학습실과 동아리방, 다목적 연습실 등의 특화 시설이 있다. 동아리방은 3개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청을 통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댄스, 탁구, 다트, 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도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시립청소년도서관 관계자는 “일반인 이용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개인, 가족, 직장, 동호회 독서 모임 장소로 동아리 활동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서 동아리 신청은 245-5763.

시립청소년도서관 ☎ 245-5761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택! 북부노인복지관

지난해 말 문을 연 신사우동의 북부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범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라인댄스 △장수춤 △난타 △민요 △건강체조 △뮤직벨 △동양화 △뷰티 △자서전 쓰기 △스마트폰으로 친구 되기 등이다.

시설 이용은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가입비 1만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저소득,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150석의 식당에서는 점심을 2,000원에 제공한다.

소양초등학교와 강원도재활병원 옆에 들어선 북부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30㎡에 식당, 당구, 탁구, 바둑, 장기, 서예 등 여러 취미활동 공간, 물리치료실, 강당, 야외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종합복지시설이다.

장수건강과 ☎ 250-3554 북부노인복지관 ☎ 255-9877



자부담률 낮아진 농기계 종합보험

사고 시, 대인과 대물 피해를 배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업인 자부담률이 종전 25%에서 20%로 줄어든다.

대상 기종은 동력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 로우더, 농용 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 가입 자격은 해당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2018년 9월까지 지역(품목)농협에 신청.

시 농업기술센터 ☎ 250-4745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지하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19종이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대상 시설 1,597곳 중 35%인 564곳만 가입한 상태다.

연간 보험료는 2만~3만원으로, 사고 시 사람은 1억5,000만원까지, 재산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총괄담당관실 ☎ 250-4296

도농복합지구 인구 증가 두드러져

우리 시의 최근 4년간 읍·면·동별 인구 증가율이 효자1동(45.9%), 동면(45.7%), 소양동(40.4%), 강남동(21.2%), 동내면(12.9%)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인 동면은 2013년 말 1만 3,512명에서 2017년 11월 말 기준 1만9,682명으로 6,170명이 증가해 퇴계, 석사, 신사우동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다. 강남동도 1만4,928명에서 1만8,092명으로 3,164명이 증가하며 6위에 올랐다. 동내면은 1만5,079명에서 지난달 1만7,000명을 넘어(1만7,020명)섰다.

관련 부서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외곽 개발이 촉진되면서 도농복합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소통담당관실 ☎ 250-4269

“담배 안돼요!” 온의동 보배 금연아파트 지정

온의동 보배아파트가 2018년 1월 1일자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7월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를 처음으로, 후평3동 현대4차아파트, 동면 대동다숲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정일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지정받는다.

시 보건소 ☎ 250-4666

겨울동안 의암호 자전거길 일부 통제

현재 의암스카이워크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 중이다. 제한구간은 신동면 의암리 김유정문인비~ 송암스포츠타운 암벽장, 송암동 수상협회 입구~ 삼천낙시터 입구, 중도물레길 입구~ 삼천동 옛 중도선착장 앞.

통제기간은 2018년 3월 중순까지. 보행자 통행도 제한된다.

도로과 ☎ 250-3159

배후령고개 정상 겨울철 통행제한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군도 8호선인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 정상 구간의 모든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겨울철 폭설과 결빙, 낙석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북산면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을 이용해야 한다.

도로과 ☎ 250-3162



여성공중화장실에 ‘지능형 비상벨’ 설치

춘천경찰서 (서장 이규문)는 춘천시와 함께 88공원, 무릉공원, 석사동 산책로, 봉의산 순의비 인근 여성공중화장실의 세면대 부근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 완료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여성 음성을 인식하여 “사람 살려” 또는 “살려주세요”라고 외기지만 해도 화장실 외부 경광등이 울려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고, 자동으로 강원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결, 경찰과 음성통화를 할 수 있어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이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체감안전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 245-0609

실종아동예방 ‘우리아이 지킴이 키트’ 배부

춘천경찰서는 소중한 내 아이를 실종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아이 지킴이 키트’를 배부한다.

우리아이 지킴이 키트는 가정에서 아이의 지문과 유전자 정보를 직접 채취하여 보관하다가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각종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무연고 아동 유전자와 대조하여 보호자를 찾는 방식이다.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245-0624



의회소식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제276회 정례회를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고 총 24건의 안건을 다뤘다. 안건내용을 보면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안 5건이다.

-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춘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춘천 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보다 상세한 의정소식은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사(맥국) 말살 규탄 성명서

이대주 춘천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국립춘천박물관은 2017년 10월 30일 전시장을 재개장하면서 춘천지역의 맥국(貊國) 유적·유물을 모두 영동지역의 예족(濊族)문화로 둔갑시켜 춘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말살하여 춘천의 맥국 역사를 지워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무성의한 태도로 춘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립춘천박물관은 춘천지역에 있으면서도 춘천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우리 지역 문화와 역사의 말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국립춘천박물관의 졸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역사사(맥국) 말살과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저지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춘천시민은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보내어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정 활동



2017
11.21 춘천시의회 황환주 부의장과 의원들은 소양로 기와 집골 골목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2017
11.22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규)는 회의를 열어 춘천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의사 일정 및 안건 등을 협의했다.



2017
11.23 춘천시의회는 황환주 부의장 주재로 시민복합공원 기본계획 수정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2017
11.27 춘천시의회도시재생연구회(회장 황찬중)는 '춘천 42만 도시는 가능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2017
11.27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중일)는 회의를 열어 제276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을 협의했다.



2017
11.27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회의를 열어 제276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을 협의했다.



2017
12.1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중일)는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2017
12.6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2017
12.11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규)는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2017
12.15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영)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봄내골 소식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의 소식을 전합니다



장학금 성금·나눔후원

» (주)성창(대표 이태수, 홍순현)은 11월 21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 후평2동 행복나눔미봉사단(회장 이광자)은 12월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희망2018나눔캠페인 모금액 50만원을 후평2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 춘천 C&C이벤트 (대표 김덕만)는 12월 11일 신사우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50만원 성금을 기부하였다.



» 한국유네스코 강원도협회(회장 조선모)는 12월 6일 시청을 방문,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릴레이 전달식(일시금 100만원)에 참여했다.

» 한샘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춘천한샘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박미라)은 12월 8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후평2동 주민 이상득(춘천시청 환경미화원)씨는 12월 14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후평2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 춘천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라은희)는 12월 13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동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서정희)와 후평1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엄기옥)은 12월 13일 시청을 방문,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릴레이 전달식(동면 일시금 300만원, 후평1동 일시금 100만원)에 참여했다.

» 후평2동 행복나눔미봉사단(회장 이광자)은 12월 11일 어려운 이웃 후원 성금 50만원을 후평2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후평1동 동양아이텍(대표 고광만)은 12월 시청을 방문,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릴레이 전달식(일시금 200만원)에 참여했다.

» 한림대학교 씨름부 출신 졸업생 이민호(체육학과, 현 영암군민속씨름단)씨가 12월 8일 모교를 찾아 후배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씨는 지난해 대학부 3관왕으로 화려한 시즌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영암군청 씨름단에 입단했다. 12월에 열린 2017년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금강장사에 등극하여 상금 중 200만원을 기부했다.



» 후평1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종학)는 12월 7일 시청을 방문,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릴레이 전달식(일시금 100만원)에 참여했다.

» 춘천시청 춘천여고 출신 동문회 '목백합회'(회장 김영옥)는 12월 11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춘천시지역 건축사회(회장 석근호)는 12월 11일 시청을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 퇴계동 통장협의회(회장 정은선)는 12월 5일 시청을 방문,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릴레이 전달식(일시금 100만원)에 참여했다.

» 춘천시 족구협회(회장 한주환)는 12월 6일 불우이웃돕기 족구대회에서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퇴계동 청우회(회장 박남기)는 12월 12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주)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은 11월 27일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이주연),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춘천시지회(회장 김수진)에 저소득아동, 장애인여성 후원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 퇴계농공단지 성원기업(대표 서상숙)은 11월 30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 후평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여정수)는 12월 4일 춘천시 봉내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 아가사랑후원회 후원금(300만원) 전달식이 11월 22일 시청에서 춘천시장, 김미영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퇴계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김홍복)은 12월 1일 시청을 방문,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마련한 후원금 113만원을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위해 전달했다.

» 신복읍이장단협의회(회장 김신림)는 장터운영수익으로 마련한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11월 24일 신복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동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염순직)는 11월 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동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의정부 소재 상조회사 (주)우정라이프(대표 김우형)는 동면 품격리 화사건물 신축 축의금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1월 22일 기탁했다.



음식·잔치·물품·김장

» 효자1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김옥련)는 11월 22일 효자1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10월 김장절 팔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으로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



»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위원장 엄기옥)는 12월 6일 어려운 이웃 32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이영신)은 11월 30일 복지관에서 2017년 홀몸어르신 이불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민간단체, 개인후원자, 자원봉사 단체, 이마트 춘천점(250만원 이불 후원) 등이 도움을 주었다.

» MS마트(대표 이원복), 옷찾사협동조합(이사장 경민현)은 11월 29일 취약계층 후원 김치(400kg, 320만원 상당)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 춘천시체육회, 춘천시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회장 조중혁), 스포츠클럽 직원 등 21명은 11월 30일 연탄 1,500장을 저소득 4가구에 배달했다.



» 남춘천로타리클럽(회장 이용균)은 11월 27일 저소득가구 후원연탄 2,000장을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춘천시 평생학습관 흠베이커리반 제빵봉사단(강사 이현정)은 11월 27일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지역 저소득 계층 후원을 위해 직접 만든 빵 100개를 소양동 아주봉사단(단장 이관선)에 전달했다.



» 효자2동봉사단(단장 이종수)은 신복읍 참사랑의집(장애인복지시설)에서 김장봉사를 진행하였다. 11월 24일에는 저소득층 6가구에 연탄배달(1,600장) 봉사를 진행했다.

효자2동 이웃지킴이사회복지봉사단(단장 김영희)은 11월 24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이불 58채(총 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강남동 명동우미닭갈비(대표 조성열)는 11월 28일 저소득가구 후원 쌀(20kg, 100포, 440만원 상당)을 강남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교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남숙)과 행정복지센터는 11월 27일 저소득 2가구에 연탄 600장 배달 봉사를 했다.



» 동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숙희)와 다문화 가정 30여 명은 11월 19~20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 400포기는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 50여 가정에 전달됐다. 김치 재료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 후원했다.

» NH농협 춘천시지부(지부장 길천수)는 11월 21일 취약계층 후원 김치(10kg, 50박스, 300만원 상당)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과 춘천로타리클럽(회장 김동호)은 12월 12일 신사우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북부노인복지관 개관식에서 화환을 대체하여 기증받은 쌀 10포대와 춘천로타리클럽의 연탄 2,000장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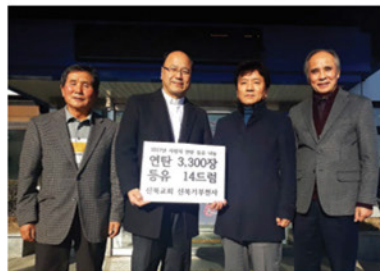
» 봄내노인복지센터(시설장 고옥자)는 사북면 지역 홀몸 저소득 어르신가정에 연탄, 난방유 및 이불, 김장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 등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순)는 12월 1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이재호)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 13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계를 기증했다. 11월 30일에는 파자마 60장(총 120만원 상당)을 신사우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신북읍 읍문리 신북교회(담임목사 이창봉)는 12월 4일 저소득가구 후원 연탄(3,300장)과 등유(14드림)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부장 이영걸)는 12월 5일 약사명동 홀몸어르신 10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 신사우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사회복지봉사단(단장 최규태)은 11월 22일 저소득가구에 연탄(600장) 배달봉사를 벌였다.



» 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종임)는 12월 7일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구에 라면 25박스(총 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효자3동 두하골 봉사단(단장 강금옥)과 구월숯불구이(대표 남기섭)는 12월 6일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는 '사랑의 나눔밥상' 행사를 가졌다.



» 풍물시장상인회(회장 임병철)는 11월 21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갖고 김장김치 1,000포기를 관내 경로당 및 홀몸어르신,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하였다.

» 소양로 소재 동양철학원(원장 한명수)은 12월 7일 근화동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백미4kg 20포 및 과자 1박스(20만원 상당)를 근화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강원지방경찰청 마라톤동호회(회장 천균철)는 11월 25일 효자2동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연탄 300장과 후원금 20만원을 전달하였다.



» 교동초교 병설유치원 원생들은 11월 27일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마련한 후원품과 성금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문했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이영신)은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행사를 11월 24일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좋은이웃들(회장 최승선)에서 열었다(후원생필품 17박스 총 80만원 상당).



»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은 12월 6일 효자2동 어려운 이웃 10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박스와 쌀 20kg 10포대, 라면 10박스, 화장지 10세트를 전달하였다.



» 감리교 춘천남지방 평감리교회 평신도들이 12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펼쳤다. 장로회, 남녀선교회 10여명의 성도들은 1,300장의 연탄을 소양동 6가구에 전달하며 위로하였다.



» 후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섭)는 11월 30일 10월~12월 생신을 맞으신 관내 홀몸 어르신 10분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생신잔치를 개최하였다.



» 강남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이종수)은 12월 13일 홀몸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6가구에 봉사단원이 정성껏 만든 반찬 3종류를 전달하였다.



» 낙원라이온스클럽(회장 최상희)은 퇴계동 저소득 홀몸노인 2가구를 찾아 연탄 900장(총 5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지사장 최상현)는 12월 5일 폐지 수집 어르신 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안전조끼 250벌(총 600만원 상당)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새벽을 여는 박사마을 서면사회복지봉사단(단장 홍순재)은 11월 28일 어려운 이웃(저소득 장애인 2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600장을 지원·배달하였다.



» 참사랑봉사단(회장 이근호)은 12월 8일 퇴계동 저소득 7가구(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를 찾아 겨울이불, 밥솥, 의류, 부식 등(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 춘천시니어클럽(관장 김시재)은 11월 22일 '제4회 아름다운식당 김장나눔' 행사를 식사동 식당에서 갖고 노노케어사업 대상 홀몸어르신 53가구에 김장김치를 전해주었다. 12월 1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어르신 150분을 모시고 '건강두배 행복나눔' 행사로 중식을 제공했다.



» 조운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노석호)은 12월 8일, 10월~12월 중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 18명을 초대하여 99세까지 팔팔하게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9988 옹기종기 신바람잔치'를 열었다.



» 가락김해김씨 종친회(회장 김상욱)는 12월 1일 효자2동 저소득 가정 5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 봉사하였다.

» 석사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순녀)는 11월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담근 김장김치 15박스를 석사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 조광환경산업개발(대표 조만기)은 12월 1일 봉내체육관 앞에서 취약계층 400가구를 지원할 양곡(10kg, 400포대, 720만원 상당)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석사교회(담임목사 손학균)는 11월 15일 김장김치 30박스를 소외계층 가정 30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석사동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 춘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지성배)는 11월 18일 금고 본점 앞에서 직원, 석사동자원봉사단, 자생단체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3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였다.



» 네이버주식회사(대표 한성숙)는 12월 8일 동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김장김치 60박스(200포기)를 후원했다.

» 신북읍 천전리 심우도원(주지 일영)은 11월 30일 저소득가구 후원 라면 100박스(총 240만원 상당)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이마트 춘천점(지점장 황성재)은 11월 29일 풍물시장에서 강남동새마을부녀회(회장 전희영), 강남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이종수)과 함께 저소득가구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5kg, 800만원 상당)를 담그는 김장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 후평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애란)는 11월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김장김치 150kg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 후평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상순)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은하수 봉사단(단장 한진희, 총무담당)은 11월 20일 홀몸어르신 생신잔치를 열었다.



» 석사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개인기부자가 12월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라면 40박스, 휴지 40팩)을 석사동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이는 관내 소외계층 40가구에 전달되었다.



» 근화동 뚝딱이 봉사단(사회복지봉사단 단장 포석심)은 겨울맞이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다.

» 춘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지성배)는 11월 25일 퇴계동 어려운 이웃(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을 찾아 집수리(단열, 도배, 장판 등 총 330만원 상당)를 지원하였다.

» 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단장 신현진)은 12월 1일 조양3리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동화나라어린이집(원장 김유경)은 11월 30일 재능나눔 '작은 음악회'를 춘천동부교회에서 진행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춘천실버예술단·실버오페스트라 현악단이 함께 했으며, 행사수익금 전액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홀몸어르신들의 난방비로 전달했다.

» 신사우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순)는 11월 30일 현대아파트 경로당과 상리제일경로당을 방문하여 노래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다과(과일, 떡) 등 각 1박스를 전달하였다. 또한 맞춤형복지팀 홍보물품(파스, 밴드)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썼다.



» 신사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영길)와 82정비대 준사관봉사단(단장 진홍덕)은 11월 23일 홀몸어르신 가구의 도배, 장판 등 집수리 봉사를 했다.



» 효자1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옥련)는 11월 22일 김장절길 판매수익금 100만원으로 마련한 저소득가구 후원물품(라면 40박스)을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나영)은 11월 23일 후평3동 주민센터, 주택관리공단 3지구와 협력하여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나눔봉사단 아너모임의 후원을 받았다.

» 생활개선회 춘천시지회(지회장 이춘우)는 11월 23일 250만원 상당의 복지시설 후원물품(김치 250kg, 쌀국수 20상자)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약사명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문복례)는 11월 23일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담근 김치 250포기(90상자)를 홀몸어르신 등 소외이웃에 전달했다. 경로당 4곳에는 김장 김치와 쌀(10kg) 9포대를 전달했다.



» 동면 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근순)은 11월 23일 동면 소재 암반수 사우나에서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홀몸노인 13명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 후평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이옥자)와 맥가이버봉사단(단장 김명균)은 12월 4일 저소득 1가구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회장 박인중)는 집수리 재료비용을 후원하였다.



» 신동면 재능기부 봉사단체 '동행'(회장 진화균)은 12월 11일 저소득 홀몸어르신 2가구에 집수리 봉사를 했다.



» 춘천시 건축직 공무원과 춘천지역 건축사협회(회장 석근호) 40여명은 12월 2일 효자동에서 저소득 5가구(가구당 300장)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 약사명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조광원)은 12월 5일 홀몸어르신 2가구에 전기판넬 설치 등 집수리 봉사를 했다.



» 석사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왕선자)은 11월 22일 춘천시립양로원(요양원)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고, 12월 4일 관내 재능기부를 실천할 미용업소(다이아 헤어)를 발굴하였다. 다이아 헤어는 봉사단과 협업하여 앞으로 1년간 매월 2명씩 소외계층을 위하여 커트, 파마, 염색 등 미용봉사를 실천할 예정이다. 봉사단은 12월 12일 관내 몸이 아픈 홀몸노인택을 방문하여 내부 주거환경 청소봉사를 실시하였다.



» 후평2동 365나눔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정임)은 12월 1일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청소봉사를 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연금센터 봄내 요술풍선 봉사단(단장 김영애)은 12월 9일 신북읍 강원재활원에서 풍선아트 행사를 했다.



» 춘천호반로타리클럽(회장 정대웅)과 춘천예맥로타리클럽(회장 김선희)은 지난 10월에 시작한 사북면 지암리 홀몸어르신 주택의 집수리를 11월 20일 마쳤다.



행사·기타

»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회장 홍인표) 주민자치위원 41명은 11월 27일부터 3일간 주민자치 역량강화 선진지 벤치마킹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제주도 일원(도순동 EM환경센터)을 견학했다.



» 동면 콩이랑상거리전통장에서는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12월부터 메주를 정성껏 만들어 메주 3장 5kg 단위로 판매, 농촌마을사업을 하고 있다.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김흥복)는 12월 7일 어려운 이웃을 정기 후원하는 '나눔이웃' 협약 및 현판식을 했다. 1호점은 흥부네무한갈비(대표 배병열), 2호점은 장플랜(대표 장숙자)이 선정됐다.



» 춘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은 11월 23일 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외부강사(김진원, 서울재활병원 물리치료사)를 초청하여 '보호자를 위한 근골격계 운동 교실'을 실시하였다.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주택연금

강원지사 259-3615

금융위원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금융개척
금융의 길잡이
이제 금융의 미래입니다



강습 · 교육

근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집기간 12. 26 ~ 12. 29(2018.1.12까지 추가 접수)
운영기간 2018. 1. 2. ~ 2018. 3. 30
수강료 신청 시 3개월분 선납(3만원: 노래교실, 난타교실/4만5천원: 댄스스포츠)
수강료 감면 *100% 감면(본인):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록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 만 65세 이상
 ※감면 및 무료 대상자는 신분증 및 관련증빙 지참
문의 ☎250-3615, 245-5628
 ※ 참고사항 : 방문선착순, 근화동 주민 우선 선발.
 타 읍면동 주민의 경우 접수 순 뒤부터 취소될 수 있음.
 모집기간 내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60% 이하인 강좌는 폐강됨.
 댄스스포츠 초·중급반은 실내운동화 준비. 감면면제 대상자는 1분기에 한 과목만 적용. 감면면제 대상자가 수강료 50%미만일 경우 다음 수강신청 시 감면 제외

프로그램	정원	운영일정
댄스스포츠(초급)	30	월,수 14:00~16:00
댄스스포츠(중급1)	30	월,수 10:00~12:00
댄스스포츠(중급2)	30	화,금 10:00~12:00
노래교실	30	화 10:00~12:00
난타교실(초급)	20	금 12:00~14:00
난타교실(중급)	20	수 12:00~14:00
무료 요가 근화동 주민 : 만 50세 이상 그 외지역 : 만 60세 이상	30	월,수 16:10~17:10

춘천시립도서관 2018년 1월 인문학 강좌

일시 2018년 1월(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강사 유승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일정 ▷1.4(오래된 미래들-옛글씨)
 ▷1.11(정통과 변주-통일신라와 고려의 서체)
 ▷1.18(조선의 서체) ▷1.25(조선후기 서체)
장소 춘천시립도서관 2층 시청각실
접수 당일 현장 접수
문의 ☎245-5109

1월 시민 인문학 무료강좌

일시 △1.10(수 19시, 뮤지컬 '레미제라블', 김종로 교수)
 △1.24(수 19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김종로 교수)
장소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08호
대상 시민 누구나
문의 강원대학교 시민인문교육센터(☎250-8106)

춘천여성 바둑강좌 개설

신청기한 2018.1.31까지
대상 바둑에 관심 있는 춘천시 여성 누구나
수강료 월 3만원(교재비 포함)
운영일시 2018년 2월~5월(3개월)
강좌 입문, 초급, 중급반(수, 금 11시~12시, 15시~16시)
장소 춘천시바둑협회(춘천기원) -낙원동 62-1
문의 춘천시바둑협회(☎242-0361)

'인문학(재미있는 한자공부)' 시민 강좌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봉헌선원 내 봉향당(모수물길 22번길 22)
교육내용 한자원리, 한자풀이와 활용, 한자 지도사 과정 등
수강료 월 10만원
수강신청 수시 접수
문의 봉헌선원(010-4235-5123)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무료 열린시민강좌 수강

대상 시민 누구나
교육과정 스포츠클라이밍, 원예테라피교실, 시민재테크교실 등
접수기간 12월~2018.1월까지 과정별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ile.kangwon.ac.kr>)
교육장소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봄내클라이밍장
문의 ☎250-7189~7191

모집과정	교육일시	모집인원
원예테라피교실	12.19 ~ 2018.1.30 매주 화 19:00~20:00	매주 10명 (7회 모집)
스포츠클라이밍	2018.1.6(토) 09:30~13:30	40명
맞벌이부부 재테크	2018.1.13(토) 10:00~13:00	60명
엄마의 돈공부	2018.1.20(토) 10:00~13:00	60명
궁중민화교실	2018.1.13(토) 14:00~17:00	외국인 20명
생활다도교실	2018.1.13(토) 14:00~17:00	외국인 20명

시립청소년도서관 1월 인문아카데미

대상 고등학생 및 일반인
일시 매주 수요일(19~21시)
 ▷1.10(지금 왜 공자와 <논어>인가)
 ▷1.17(공자와 제자들) ▷1.24(군자와 소인)
 ▷1.31(인이란 무엇인가)
강사 문성환
장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삼천동) 2층 강의실
접수 당일 방문 참여
문의 ☎245-5764

국립춘천박물관 1월 프로그램

구분	제목	일시	대상	내용
상설전시	강원의 역사와 문화	화~일 10:00~18:00	누구나	개관 이후 15년간 강원의 문화유산 재개관 전시 문의 ▶ 안내데스크 (260-1500)
전시해설	갤러리토크(Gallery Talk)	화~금 10시~17시	누구나	다채로운 전시 이야기, 커피와 기념품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토크	1.31.(수) 16:00~17:00		문화재 이야기! *사전 신청 시 기념품과 커피 제공(1.30 신청마감) 문의 ▶ 홍보팀(260-1521)
문화 행사	요술풍선, 페이스페인팅	1.13(토), 27(토) 13시~15시	어린이	요술풍선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 행사
	문화가 있는 날	1.31(수) 11시	누구나	춘천MBC 임신육아교실
	박물관 영화관	토, 일 공휴일 15시		무료 영화 상영(강당) 문의 ▶ 문화행사팀 (260-1517, 1555)
교육 및 체험	새싹들의 박물관 나들이	화~금 10시~12시	초등학교 단체	- 대상별 맞춤형 선택 체험 교육프로그램 제공 (선사인의 오곡액자, 광섬유 모란꽃 만들기 등) - 체험 신청 ▶ 교육팀(260-1532, 1591) - 세부 내용 ▶ 누리집에서 확인
	사랑박물관 희망박물관		복지시설 단체	
	지구촌 박물관 가족		외국인·다문화가정	
	박물관 병영문화학교	화~금 14시~17시	군장병· 군가족단체	
	어린이 문화 사랑방	화~일 10시~17시	영·유아 미취학아동	8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속 감성 놀이터
	체험공간 - 문화놀이터	화~일 10시~18시	관람객 누구나	'그리기, 색칠하기로 만나는 옛 그림' 체험 Zone '찍어내고 두드리며 만나는 전통 문양' 체험 Zone '인쇄와 탁본으로 만나는 옛 이야기' 체험 Zone '예술과 일상 사이 : 전통 공예 재해석' 체험 Zone 문의 ▶ 박물관교육팀 (260-1522, 1528)

*국립춘천박물관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상세 일정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 참조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시립청소년도서관 청소년 겨울나기 프로그램

대상 중학생(예비중학생 포함) 각 프로그램당 25명
장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삼천동) 다운실
일정 ▷교과연계 스쿨브릿지(1.16~1.19/10~12시)
▷나의 경제 지능 키우기(1.23~1.26/10~12시)
접수 12. 26(화) 09:30부터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245-5764

시립청소년도서관 1월 주말 프로그램

대상 유아, 어린이 및 가족
장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삼천동) 2층 강의실
일정 ▷클래식 음악동화
(1.7. 14:30~16:00/ '수상한 가정부 아줌마')
▷발도르프 인형극
(1.13. 14:00~14:30/ '꽃감과 호랑이')
접수 당일 방문 참여
문의 ☎245-5764

치매 시민무료강좌 '치매 알아가기'

대상 치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 누구나
일시 1.23(화) 10:30~12:00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내용 치매 개념, 치매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서비스
문의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자원연계팀
(☎257-9165)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프로그램

학생드림 △초중고급반/개강 2018.1.13/토
13~21시(2시간 기준)/수강료 8주 8만원
성인드림 △초중급반/개강 2018.2.2/목
19~21시/수강료 8주 9만원
△고급반/개강 2018.1.2/화
18~22시/수강료 8주 9만원
△전문가반/개강 2018.2.21/수 19~21시/
수강료 8주 10만원(학생), 12만원(성인)
해금 개강 2018.1.4/목 19~20시
청소년·성인/수강료 4주 7만원
통기타 초중급반/개강 2018.2.10/토 13~15시(중급),
15~17시(초급)/청소년·성인/수강료 8주 8만원
문의 ☎251-1318, www.cc1318.or.kr



모집 · 신청

제23회 '바이오캠프'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18.1.3~1.5
대상	춘천의 초등학교(예비 4학년~예비 6학년) 회당 20명(선착순)
일정	△1차(1.15~1.16) △2차(1.17~1.18) △3차(1.22~1.23) △4차(1.24~1.25)
내용	렌즈로 바라보는 신기한 세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밀, 현미경으로 생물 관찰 하기, 내가 만드는 동식물 프레파라트 등)
참가방법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홈페이지(cbf.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cbf- biocamp@naver.com) 접수(전화, 팩스 불가)
참가비	차수당 2만원
장소	춘천바이오타운 BIO-2동 2층 206호 장비교육실(후평동)
문의	☎258-6949

2018년 춘천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여 모집

운영기간	2018.3월~12월
운영종목	총 11종목 774명 △축구(290명) △야구(80명) △테니스(120명) △농구(90명) △배드민턴(40명) △펜싱(36명) △플로어볼(30명) △볼링(20명) △탁구(20명) △빙상(24명) △인라인(24명)
접수기간	2017.12월~ 선착순
접수방법	이메일(cc8964@hanmail.net) -춘천시체육회 홈페이지 신청양식 다운
문의	☎264-8964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체육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18년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교육과목	71과목 1,843명
신청기간	2018.1.3(수)~1.12(금)
전자추첨	2018.1.16(화) 11:00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춘천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1인 2과목까지 신청 가능,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 접수대행(본인 명의 핸드폰 지참)
수강료	5만원(월 1만원), 재료비 별도
문의	평생학습관 교육운영팀(☎245-5191)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기술과정(국비취업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18.2.19까지(방문, 홈페이지 접수)
교육기간	2018.3월~2019.2월(주간1년)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학력 및 지역 무관)
모집학과 (인원)	미디어콘텐츠(33), 반도체표면처리(33), 산업설비(33), 스마트제품디자인(33), 자동차(33), 전기(66), 컴퓨터응용기계(33)
입학혜택	교육비 전액 국가지원, 기숙사 무료 제공, 교육수당 지급, 취업 알선 등
문의	☎260-7651~6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스마트폰 休-Day' 참가자 모집

대상	청소년(대학생 포함), 성인 남녀 누구나
내용	수세미 뜨기(대바늘)를 통해 스마트폰 休-Day 실천 및 완성품 기부 ※ 청소년은 작품(수세미) 1개 완성 시 봉사 2시간 부여 (3회 까지 가능) ※ 프로그램 활동은 센터 내에서만 가능, 수세미 뜨기 재료(실, 대바늘)지원

활동기간	12월 ~ 2018. 2월 (목표 100개로 재료 소진 시 마감)
활동일정	12월 6일부터 매주 수(14~18시)
문의	강원스마트쉼센터(☎249-3078) ※사전 전화예약 필수

건설근로자무료취업지원 참여자 모집

대상	▷구직자(건설 관련 신입 및 경력자) ▷구인처(토목, 건축, 조경, 설비, 청소 등 건설 관련 제반 업종)
모집기간	연중 수시
주요내용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무료지원 ▷건설관련 자격증, 기능교육 연계 ▷기초안전보건교육 연계(상담 후 혜택 제공) ▷각종 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등
문의	건설근로자취업지원강원원서센터 (호자로7-1, 한국노총빌딩) ☎256-8816, 1666

2018학년도 춘천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1.1~2018.2.10
교과정	불교학과(초급반 1학년, 중급반 2학년)
교과목	기초불교이론, 초발심자경문, 법화경, 유마경, 금강경
연령 및 학력	제한없음
모집인원	120명(선착순)
입학금	10만원
기타	삼사순례, 체육대회, 특강
문의	대한불교천태종 삼운사(☎241-1330)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내일배움카드제 수강생 모집

대상 실업자, 재직자, 일반인
자격증 △제과·제빵기능사(1,3~3,26)
대비방 △전산회계 2급(1.4~2.22)
 △한식조리기능사(1.15~4.6)
홈페이지 www.ccwomen.or.kr
문의 ☎243-6474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모집

대상 취업희망 모든 여성(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일정 월 2회 진행 예정
교육시간 09:30~13:30(월~금)
특전 80%이상 참여 시 수료, 수료 후 취업 지원 및 무료 직업교육훈련
접수방법 방문수시접수(반명함 사진 1매)
홈페이지 www.ccwomen.or.kr
문의 ☎243-6474

한림해피존지역아동센터 이용 중학생 모집

내용 청소년의 방과 후 급식, 학습, 문화, 진로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학기 중(방과 후~20시), 방학 중(09~18시)
센터위치 한림대학교와 향교 사이 봉의산DC마트 2층
이용료 무료
문의 ☎243-1813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음악치료 이용자 모집

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간 월~금, 9:00~12:00(시간조정가능)
내용 음악치료(바우처)
문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262-0152)

도예활동 체험자 모집

대상 지역 주민(만 6세 이상~)
인원 회기당 2명~12명(단체)
참가비 지역주민(최소 2명~최대15명/단체 환영),
 체험비 12,000원(1인 1점 기준)
문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활동지원팀
 (☎262-0035)

청소년응급구조 프로그램 참가모집

일시 2018.1.13(토) / 2018.1.20(토)
대상 중고생(선착순 20명)
참가비 2만원(*봉사시간,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등
문의 ☎251-1318

춘천그린악단 단원 모집

모집시기 ▲분기별 모집(조운동, 퇴계동행정복지센터 접수)
 ▲수시모집(전화문의 바람) *초보자 환영
문의 010-2471-5638(박명상)

프로그램	운영일시	장소
하모니카	월(09:30~11:30)	조운동주민센터
	화(09:30~11:30)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목(13:00~15:00)	조운동주민센터
리코더	월(13:00~15:00)	조운동주민센터
춘천그린악단 (아코디언, 키보드)	목/금(09:30~11:30)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드론·DSLR교실·스마트폰

영상 프로그램 참가모집

모집기간 교육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바람.
모집대상 중고생
참가비 무료
신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문의 ☎251-1318

‘고령자인재은행 구인구직 알선’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소양 교육, 인턴연계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및 채용업체
문의 춘천YWCA(☎254-4878)

‘춘천YWCA 합창단’ 재창단 단원 모집

대상 노래를 사랑하는 여성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춘천YWCA 4층 강당
문의 010-8796-7033

‘꽃꽂이 기초 및 성전 꽃꽂이반’ 모집

강사 이현정 꽃 예술작가
 (한국 꽃 예술작가협회 현 정회 회장)
대상 강원도민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4:30
장소 춘천YWCA 2층 강의실
문의 ☎254-4878

‘춘천YWCA 건강돌보미’ 모집

병원 간병서비스(강대병원, 강원재활병원 등 알선가능)
대상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63세 이하)
문의 ☎254-4878

인문계 고3 '헤어미용+네일아트' 무료 교육생 모집

대상	인문계 고3 학생 (대학 비진학 학생, 취업목표 학생)
신청기한	12월부터~ (현재 접수 중)
교육기간	2018.3.12~2019.2.13
교육시간	월~금(09:00~16:20)
교육내용	헤어미용+네일아트 자격 취득 이론, 실기 전반
교육장소	강원인재개발원(팔호광장 인근)
기타	훈련장려금 지원, 교육비, 재료비 전액 정부지원
문의	☎242-3331

춘천현대사생회 회원 모집

대상	그림에 관심 있는 누구나
분야	수채화, 유화, 한국화, 아크릴화 등
활동시기	매년 3월~11월(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활동장소	춘천 근교 아름다운 풍광을 현장에서 사생
활동지도	초보자 지도(4명의 자문위원 작가)
전시회	연 1회 정기전 개최(11월)
문의	현대사생회 회장(010-4220-9588) 부회장(010-7347-5204) 사무장(010-5377-423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위탁시설	△천년나무어린이집 (가칭) 춘천시 우두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거두행복어린이집 (가칭)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35
위탁기간	2018. 2. 1. ~ 2023. 1. 31. *5년간 (2018. 3. 1. 어린이집 운영 예정)
접수기간	12. 19 ~ 12. 27
문의	춘천시 출산보육과(☎250-4778)

행사

제야의 종 타종식

일시	2017.12.31(일) 14:00~2018.1.1(월) 00:30
장소	▲시립청소년도서관(타종식) ▲로맨틱춘천 페스티벌 행사장(부대행사)
행사일정	▲시민 참여 행사(14:00~23:20) - 소원지 쓰기(LED풍선 매달기), 토정비결, 타로 봐주기, 참여공예, 다양한 거리공연(미술, 광대 등) ▲식전 행사(23:20~23:45) - 가수 초청공 연, 시립합창단 등 ▲타종식(23:45~24:30) - 송년메시지, 시민인터뷰, 카운트다운, 타종, 불꽃놀이(공지천 보트장) 등

행정·기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기준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업, 도산업, 시내버스업, 유통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정비업
확대	사치·향락, 미풍양속 저해업체를 제외한 전 업종 ※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 ①골동 품, 귀금속 중개업 ②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③ 주점업(기타주점 제외) ④금융·보험업 ⑤부동산 임대·공 급업 ⑥신용조사·추심대행업 ⑦골프장·스키장 운영업 ⑧무도장 ⑨기타 캐블링·베팅업 ⑩증기탕·마사지업 ⑪ 기타 불건전 업종(도박·음란물 등)

확대시행일	2018.1.1.~
문의	기업과(☎250-3088)

2017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2017.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단, 화물·승합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외
납부기간	2017.12.16~12.31
과세기간	2017.7.1~12.31
문의	춘천시 세정과(☎250-3293, 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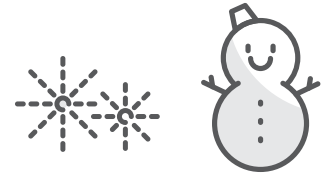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개선

개선내용	- 원동기 학과시험 문제 유형 변경 : 진위형 (O · X) ⇒ 4지 선다형 - 이륜자동차 문제로 통합하여 500문항의 문제은행 운영
항수 확대	현행 : 제2종 소형 300문항, 원동기장치자전거 300문항 별도 운영 개선 : 이륜자동차 문제로 통합하여 500문항의 문제은행 운영
시행일	2018.1.2.(화)부터
문의	☎1577-1120, 춘천운전면허시험장 (☎269-1200)



춘천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신청서는 방문 시 작성)
 신청장소 춘천시 치매안심센터 상담실(보건소 1층)
 문의 ☎250-4579, 4559



서비스 구분	대상	지원내용	방문 시 구비서류
치매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 발급 ·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 · 실종 시 인식표 번호조회로 가정복귀 지원	없음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고 배회증상 이 있는 어르신	· GPS형 배회감지기 보급 · 배회감지기 통신비 지원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치매어르신 의료용품 지원	가정에서 요양 중인 중증 치매 어르신	· 첫 등록 시 방수시트, 식사용 앞치마 지급 · 월 1회 기저귀 3팩, 일회용장갑, 물티슈 지원	· 치매진단서 원본 1부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위소득 120%이하)	· 월 3만원 한도 진료 · 약제비 지원(실비)	· 치매진단서 원본 1부 · 치매약 처방전 1부 ·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연도) 1부 · 입금통장 사본(대상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2018년 장난감도서관 이용 안내

이용대상 유아 1세~7세 ※ 7세(2011년생)는 취학 전 2018년 2월까지 가능
 이용인원 1회 120명 이내-영유아 60명 기준(사전접수 30명, 현장접수 30명) *보호자 동반 필수

구분	기간	이용 시간	이용 방법
일반	주중(월~목) (1일 3회)	1부(10:00~11:30) 2부(13:00~15:00) 3부(16:00~18:00)	사전접수+현장접수 ※ 주중1부는 현장접수만 30명
	주말(1일 3회)	1부(10:00~11:30) 2부(13:00~15:00) 3부(16:00~18:00)	사전접수+현장접수
단체	주중(월~목) (1일 2회 2개소)	1부(10:00~10:45) 2부(11:00~11:45)	사전접수 1회 30명 이내

접수방법

구분	접수기간	1월 신청일	비고
사전접수 (도서관 홈페이지)	개인 전 주 일요일 10:00 선착순	1.2.(화), 1.7.(일), 1.14.(일) 1.21.(일), 1.28.(일) 오전 10시	* 휴관일은 익일부터 접수
	단체 전월 마지막 주 월요일 10:00 선착순	12.26.(화) 오전 10시	* 휴관일은 익일부터 접수
현장접수	개인	회차별 운영시간 30분 전 선착순 현장 발권	무인발권기 이용
추가접수 (사전접수 취소 시)	개인	회차별 운영시간 20분 후 선착순 현장 발권	무인발권기 이용

습관의 힘!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의 젊은 시절 일화 중에 기생 천관녀와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한때 천관녀를 아껴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나, 김유신의 모친이 이를 알고 “방탕한 생활을 그만 두라”며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였다. 다시는 천관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어느 날 타고 가던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주인을 잘못 인도했다. 김유신은 바로 큰 칼로 말을 베어 죽인 뒤 안장까지 버리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천관녀는 비록 연인에게 버림받았지만 실연을 계기로 자기 집을 천관사라는 절로 개조하고 스님이 되었다니 그리 불행한 삶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불쌍한 것은 말 못 하는 짐승으로 태어나 주인의 습관대로 충실히 길을 안내했을 뿐인 김유신 장군의 말이다. 칼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칭찬받지는 못할지 언정 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몰랐을 것이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유익한 습관을 새로 들이거나 최소한 낡고 못된 습관 한 가지는 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새벽운동,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등 전자이고 과한 음주, 흡연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습관 내지 버릇은 쉽게 들지 않는 대신 몸에서 내보내기도 무척 어렵다.

2006년 미국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그때그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에 따른 것이다. 자기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익혀둔 버릇에 일상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삶이란 얘기다. 김유신 장군의 말은 인간의 습관 탓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경우다.

사람의 뇌는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비한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가 쓰는 열량의 20%나 쓴다. 때문에 인간은 뇌가 에너지를 되도록 적게, 효율적으로 쓰게끔 진화했다. 대표적인 비결이 바로 습관이다.

‘어떤 자극도 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뇌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의 모든 일을 무차별적으로 습관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습관이 뇌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지음).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느라 다양한 버릇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우리 뇌가 좋은 버릇, 나쁜 버릇을 구별할 줄 모



른다는 점이다. 고금에 걸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습관을 고치려 애썼고,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자책해 왔던가.

성경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잠언)고 했고, 프랑스 작가 폴 부르제(1852~1932)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같은 짓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착란이다’(리타 메이 브라운, 미국 작가)는 뜨끔한 경고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고 일갈하였다.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신호→반복행동→보상’이라는 ‘습관의 고리’가 되풀이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한다. 버릇이 어떻게 시작되고 순환하는지 찬찬히 관찰하는 게 나쁜 버릇을 고치는 첫 단계라고 충고한다.

새해 첫 달은 누구나 마음이 새롭다. 나를 자괴감에 빠뜨리던 못된 습관과 이별하기 알맞은 달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며 지레 포기하지 말자. 일년 내내 사흘 간격으로 작심하면 결국 습관 개조에 성공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 버릇 개 주 나’라는 속담도 있으니 이번에는말로 묵은 나쁜 버릇을 개에게 넘겨주자. 마침 개의 해이니 잘 받아줄 것이다. ●



글 노재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장)

중앙일보에서 도쿄특파원, 문화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했고, 중앙복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 신문유통원장이자 정부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춘천 출신. 명동 전원다방에서 DJ를 하던 청년 시절을 가끔 그리워한다.



그림책 프레드릭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독서포인트

다양성 존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주인공

시인 생쥐 프레드릭

! 그림 · 글 레오 리오니
! 옮긴이 최순희
! 출판사 시공주니어
! 출간년도 2007개정판
! 가격 11,000원

모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딱 짓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프레드릭.
이쯤에서 너도나도 다 아는, 유명한 베짖이가 생각납니다. 베짖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프레드
릭의 친구들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삽니다. ‘다양성을 인정
해야 돼’,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까지는
향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나처럼하기를,
나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저버렸을 때에는 틀렸다고
비난을 한 적은 없나요?

추운 겨울, 우리와 조금은 다른 듯하나 한편으로는 동경하고 싶은 프
레드릭이 추운 겨울날을 위해 모은 이야기 시, 우리 함께 들어 볼까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편집자주 : 어린이도서연구회 춘천지회(지회장 이연호)가 추천하는 이달의 그림책을
서은영 명예시민기자가 매달 한 권씩 소개합니다.



독자편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딸아이에게

아침 햇살처럼 밝고 환한 미소를 가진 재희야, 엄마는 이렇게 예쁜 재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단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밝게 자라주길... 하지만 우리 아가에게 누가 샘을 낸 걸까?
15개월밖에 안 된 우리 재희에게 암 진단이라니... 청천벽력이라는 말밖에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2016년 2월, 사랑스러운 우리 재희가 태어났을 때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봄내소식지(2017.1월호)에도 소개했었는데, 두 돌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크나큰 일이 생겼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단다.
항암이라는 무서운 치료를 6차까지 받고 이제야 조금씩 나아져 가는 우리 재희를 보며 엄마는 희망을 찾는다.
엄마는 그 어떤 풍파에도 우리 딸을 지켜줄 거야. 힘든 치료 잘 견뎌주어 정말 고맙다. 재희야 정말 사랑한다.

서 유 림 (춘천시 삭주로)

작은 농사의 즐거움

남편과 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이면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 주말마다 농사일을 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매주 다르게 식물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아주 크다. 내가 심는 작은 씨앗이 나의 노고로 매번 달라지니 맘을 홀리는 것도 잊게 된다. 우리 밭은 천수답(天水畓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과 같이 하늘 님에 기대여 농사를 짓는다. 아직 우물을 파지 않아서 남편이 씨앗을 뿌릴 때도 식물이 목말라 할 때도 우리는 물을 서너통씩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지난 봄 이 고장에 가뭄이 들어서 감자와 마늘을 기대한 만큼 수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형제자매와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주는 즐거움을 한껏 누렸다. 가을에는 비가 적절히 와서 배추, 무, 쪽파, 알타리무, 갓을 심어서 풍족하게 김장을 할 수도 있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주는 즐거움과 거둬들이는 풍요로움으로 우리는 많이 행복하다.

2018년 무술년 한 해의 농사를 기대하고 더불어 남편과 아들들의 밝은 얼굴과 건강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꿈꿔본다.

남 진 경 (춘천시 외솔길)

봄내는 독자 편지를 기다립니다

'봄내'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춘천과 관련한 추억, 사진, 작품 등을 200자 원고지 2매 (400자) 내외의 글로 써서 매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여기에 편지가 실리는 독자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교동)
춘천시청 공보담당관실 내 봄내편집실
이메일 : ccc3@korea.kr

*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주세요. 편집 사정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께

겨울 연꽃, 시북면 지춘리 - 김정호



안녕하세요? 봄내 독자 여러분!

봄내가 올해로 여러분과 같이 한 지 어느덧 25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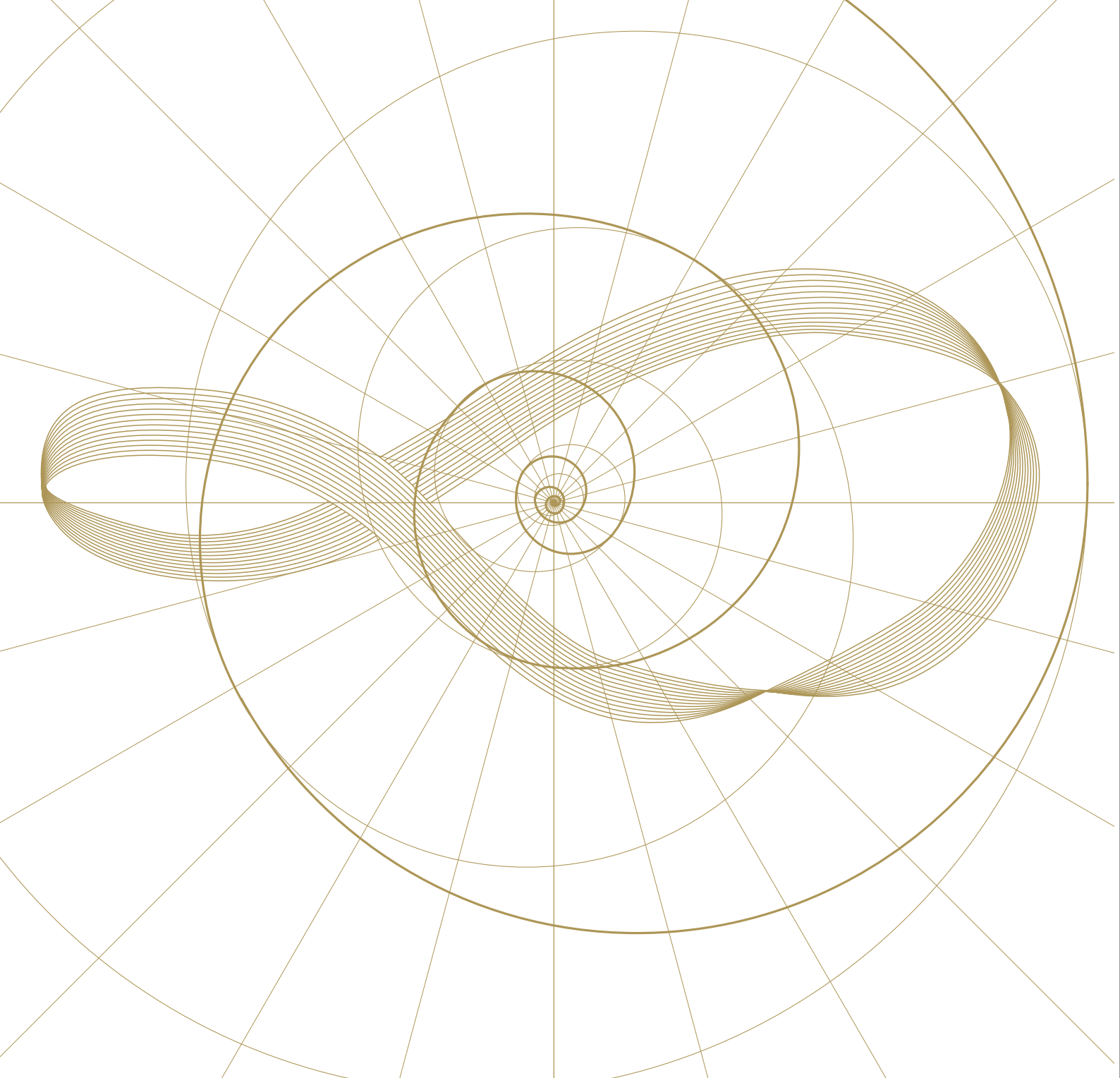
시정소식지는 그간 여러 번의 옷(1993년 창간 당시 일간지 신문 크기, 2004년 타블로이드 형 크기, 2011년 지금의 잡지 형 크기)을 갈아입으며 시대에 어울리게 맞춰오려 노력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에서 3년 연속(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봄내편집실은 2018년 신년호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춘천은 지금’, ‘행정관련 뉴스’ 등의 게재에 꼼꼼한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톡톡, 톡(Talk)해요’, ‘별의 별(星)이야기’ 등 새 콘텐츠 편집과 기존 일부 연재의 폐지를 통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구석구석 기존 정보를 보완해 더욱 더 알찬 생활정보로 소식지 봄내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함께 ‘독자편지’란을 통해 진심어린 충고, 지적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봄내편집실〉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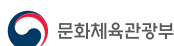
The Dictionary of Evil

악의 사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
3 February-18 March, 2018



(주)강원국제미술관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강원국제비엔날레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ROMANTIC CHUNCHEON FESTIVAL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

2017.

2018.

12. 22(금) ~ 01. 01(월)

공지천 의암공원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개장기간

12. 22(금) ~ 01. 28(일)

평일(10~21시) 주말 공휴일(10시~22시)



